



기독일보



2024년 5월 7일 화요일

www.christiandail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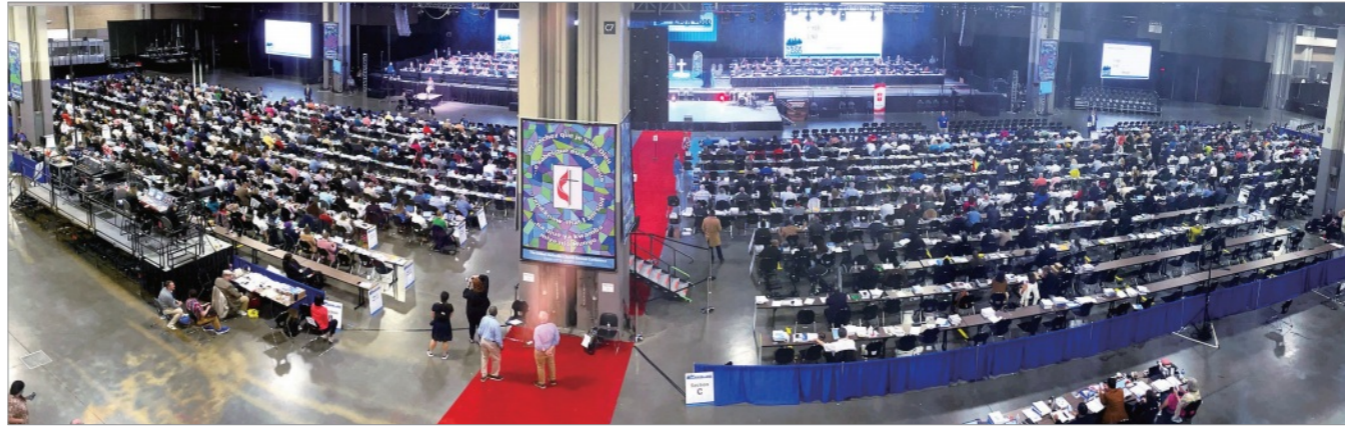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537호

UMC 한인총회 등 “총회 성소수자 결정, 그들 지지 위한 것 아냐”

공동목회서신 발표... “역차별” 방지 사항도 함께 의결
차별 없애기 위해 장정 일부 항목 개정
한인교회 전통신앙 존중 확실히 보여줘
소모적 논쟁 넘어 부흥 위해 나아갈 때

미국 연합감리교회(UMC)가 총회에서 동성애자 목사안수를 허용하는 등의 결정을 한 가운데, 이 교단 한인총회 등이 3일(현지 시간) 공동목회서신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총회의 성소수자 관련 결정에 대해 제한 규정을 없앴을 뿐, 지지하기 위한 결정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와 한인선교구, 한인목회강화협의회는 이 서신에서 “이번(UMC) 총회에서는 많은 안전이 이뤄졌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결정은 오랫동안 갈등과 논쟁이 되어왔던 성소수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없앴”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것은 동성애 관련 제한적 언어를 없앤 것과,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목회 후보자의 안수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 그리고 동성 결혼식을 집례한 목회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한 것 등이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총회에서

는 성소수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없앴을 뿐, 이를 지지하는 문구로 대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지금까지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성소수자들이 안수 과정에서 있었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장정의 일부 항목을 개정한 것이지, 그들을 지지하기 위한 결정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총회의 결정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역차별’을 방지하고 전통적 신앙을 지키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들을 함께 의결했다는 것”이라며 그 ‘보호 사항’을 아래 세 가지로 들었다. 첫째, 감독은 개교회들의 신앙 전통에 맞는 목회자를 파송한다. 둘째, 동성결혼 주례 및 장소 제공 여부에 대한 전적인 권한은 개교회와 담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총회가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됐다. ©UM News

임 목회자에게 있다. 셋째, 그 결정으로 인해 개교회나 목회자가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 세 가지 결정은 지난 2월에 한인 연합감리교회 대표들과 만난 토마스 비커트 감독장이 이미 약속했던 내용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번 총회에서는 이 사안을 교단 헌법인 장정에 공식적으로 포함해 교단 내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전통적인 신앙과 믿음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회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여러 역측과 확인

되지 않은 뉴스로 전해지고 있다”며 “그런 말들 가운데는 ‘한인 연합감리교회에 동성애자 목회자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회자가 파송될 것이며, 동성결혼 집례와 장소 제공을 강압 받을 것’이라는 말도 포함한다”고 했다. 이들은 “하지만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한인교회는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장정의 보호 아래 동성결혼식 집례와 장소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고, 동성결혼식 집례 혹은 장소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나 목회자가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성애 목회자 파송을 강요받지 않는

것을 보장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총회의 결정을 통해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 이슈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던 다툼과 분열을 종식하고, 이제는 교회의 본래 존재 목적인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이제는 모든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가진 선교적 역량을 모으고,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앞장서 나아갈 때”라고 했다. 이어 “이제부터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

는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라며 “그러기에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크신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과 전통을 견고히 세우게 될 것”이라며 “이제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자랑스러운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한편, UMC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현지 시간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선 △성직자하나나 성직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 자유, 보호를 지지한다 △선언(사회생활원칙 개정) △동성 결혼식이나 결혼식 주례로 위법 판결 받은 성직자에 대한 무급 정직 1년 이상의 의무적 처벌 조항 삭제 △교단 사회생활원칙에서 “동성애의 실천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 문구 삭제 등의 결정이 있었다. ▶관련기사3면 김진영 기자

예장 개혁, 교단 통합 후 첫 ‘목사·장로 기도회’ 개최

전국에서 약 400명 참석... 정서영 총회장 “더욱 연합해 부흥하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총회장 정서영 목사)가 최근 충남 보령시에 있는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2024년도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예장 합동개혁-개혁 측이 교단을 통합해 예장 개혁으로 새 출발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기도회에는 전국에서 약 400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제1부 세미나, 제2부 예배, 그리고 제3부 기도회 순서로 진행됐다. 제1부 세미나는 안양노회장 이금숙 목사의 기도로 시작했다. 강사인 수도권제대대학원대학교 이지혜 교수(신약신학)가 ‘히브리서가 말하는 아들 됨이라는 주제로, 제1강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3-4장), 제2강 ‘광야를 지나 들어가’

는 안식(1-2장)을 강의했다. 제2부 예배에 앞서 총회장 정서영 목사의 소개로 수도권제대대학원대학교 설립 이사장 나 원 목사가 등단해 인사말을 했다. 나 목사는 “교단 합동 후 첫 목사·장로 기도회 모임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총회와 노회, 지교회 모두 부흥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총회장 이상규 목사가 인도한 예배에선 부총회장 유연섭 장로가 기도했고, 서기 김양수 목사가 창11:29-12:2 말씀을 봉독했다. 이어 수도권제대대학원대학교 임홍재·하수연 교수의 특송 후 총회장 정서영 목사가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 총회장은 “같은 환경에서 두려움을 안고 가는 사람이 있고, 자신감을 갖고 가는 사람이 있다”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일생을 하나님께 보충하고 인도하신다”고 했다. 그는 “아브라함을 들어 쓰신 것처럼,



예장 개혁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예장 개혁

우리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더욱 연합하는 가운데 총회와 노회가 서로, 교회마다 부흥하고 발전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헌금 순서에서 중앙노회 강사라 목사가 특송을 했고, 회계 최공호 목사가

기도했다. 이후 김순기 총무가 광고했고 함께 찬송을 부른 후, 직전 총회장 정성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제3부 기도회는 총회부흥사회 총재인 채광명 목사(증경총회장)의 인도로 진행됐다. 채 목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이 사역 성공의 비결이니,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보자”고 했다. 특별기도 순서에선 △강북서노회장 임명하 목사가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



총회장 정서영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예장 개혁

해” △수도노회장 문양식 목사가 “교단과 노회, 지교회의 부흥을 위해” △천안노회장 김성희 목사가 “수도국제대대학원대학교와 개혁신학교를 위해” △목포노회장 박영일 목사가 “지방신학교 활성화를 위해” △광주동노회장 이현욱 목사가 “세계선교와 선교사의 사역을 위해” △동서노회장 정성국 목사가 “한국교회 연합과 다음 세대를 위해” △경남노회장 박정훈 목사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전북노회장 우현식 목사가 “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노회장 이복순 목사가 “의료계와 정부의 조속한 협의를 위해” △서서울노회장 정병우 목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전주노회장 장주환 목사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종결을 위해” 기도했다. 한편, 예장 개혁총회는 오는 6월 ‘전국 목회자 부부 여름 수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팬데믹 이후 직장선교 활성화, 어떻게?” >> 7면

Harrington Tower

차원이 다른 특별한 삶의 시작!

살고 싶은 럭셔리 주거 라이프가 시작됩니다

대법원/대검찰청, 서초역, 교대역, 강남역, 서울교육대학교, 남부터미널역, 서울고교, 유면산, 예술의전당

계약과 동시에 시세차익 기대

2호선 교대역·서초역 +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거리 트리플역세권

지금부터의 강남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소유하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보이는 지금, 강남 3구의 알짜부동산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대의 넓은 공간을 선호하던 투자성향이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리는 생활까지 중심의 새로운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따져보면 볼수록 합리적인 여유! 2ROOM 3BAY 특화평면

TYPE. 2 (전용면적 58.82m²)

2.6미터 천정과 +2층 3베이 혁신평면 설계
소형 그 이상의 가치!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한 쾌적한 아파트형 주거공간

차원이 다른 레지던스형 컨시어지 서비스 (098)
하우스키핑, 핼케어, 조식배달서비스 등 수준이 다른 고품격 레지던스 라이프

트리플 역세권 프리미엄에 개발비전까지
정보사 이전 부지 개발, 양재R&CD특구 개발 등 강남·서초 특급호재 프리미엄

서초 해링턴타워 현장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8길 40
주거용·다목적·주거·(주)한양건설 (주)코오도 (주)효성중공업(주)

주택전시관 OPEN 02.525.0905

※상기 CG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외도를 수 있습니다. ※상기 CG에 표현된 건축물의 외관, 세제, 경관조명, 옥상정원, 각종 시설물, 명칭 등은 현행법규 및 인허가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만 성도·국민이 거룩한 방파제 되어 성혁명 막자”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 6월 1일 대회 참여 호소

2024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대회장 오정호 목사)가 지난 3일 서울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예홀에서 ‘동성애퀴어축제를 거룩한방파제로 막아내자’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맞서 오는 6월 1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리는 제10회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참여를 호소했다.

행사는 주요섭 목사(반도성에 기독교신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윤리위원장 신상철 목사(직전 오산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의 기도로 시작했다.

◆“10만 명 아닌 20만 명 모여 함께 외쳐야 할 때”

먼저, 인사말을 전한 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독교운동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축제의 범람을 막는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나라의 최고 중심지를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이며,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는 거룩한 방파제”라며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우리의 다음세대 즉, 우리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을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제는 10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이 모여서 함께 외쳐야 할 때이다. 동성애퀴어축제, 포괄적차별금지법, 성혁명·성오염 교육,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거룩한 연합군이 쓰나미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20만 명이 모이는 통합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제 한국교회는 서구에서부터 밀려오는 동성애 합법화 물결을 막는 거룩한 방파제가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너진 유령교회를 회복시키고 미국교회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붙잡아주는 거룩한 물결을 일으켜야 한다”고 했다.

◆“안타까운 건, 퀴어축제 참석하는 미래세대”

이어 통합국민대회 목적(취지)에 대해 설명한 공동준비위원장 김원평 교수(진평연 운영위원장)는 “동성애퀴어축제는 동성애자의 인권보호와 평등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실상은 전혀 다르다”며 “인권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선정적이고 음란한 공연과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성적으로 문란한 공연과 행위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대대 도수에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낯뜨거운 광경들이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서구에서 그랬던 것처럼, 동성애 독재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동성애 비판이나 반대를 금지하고 동성애 수용 및 찬성을 강요하는 동성애 독재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동성애 성혁명의 물결에 휩쓸려 퀴어축제를 참석하는 우리나라의 미래세대 젊은이들”이라며 “국민에게 동성애의 실상과 폐해를 정확히 알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가진 동성애 독재적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퀴어문화축제를 단호히 반대하는 통합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다.



2024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6월 1일 집회 참여를 호소했다. ©장요한 기자

◆“나 하나,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어서 특별위원장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가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 목사는 “암흑기에 빛이 됐던 한국교회가 산업화의 물결을 타며 개교회주의에 매몰돼 50년간 잠자는 거인이 되었다. 우리가 더 일찍 깨달았다면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 물들어가 있는 것을 막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의 마음이 든다”며 “나 하나,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골든타입이 지나가기 전에 성혁명주의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학부모들의 참여를 호소한 교육위원장 박은희 대표(좋은교육시민모임)는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결정된 이후 전국 7곳에서 시행되었고, 연일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폐기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에 이어 28일 서울시의회에서 힘든 과정 가운데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고 했다.

박 대표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 법이 하나 개정되면 바꾸거나 폐지하는 것이 노력에 비해 더 힘들다. 그렇기에 학생인권법은 절대로 개정되어선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은 차별금지법과 같다. 이것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1일에 열리는 거룩한방파제 집회가 중요하다. 이날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나오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일에 모든 학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지역연합회·한국성서화운동협의회 등의 참여를 호소한 공동사무총장 박명운 장로(대전성서화운동본부사무총장)는 한국성서화운동본부가 전체 지역 80여 군데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전국 226개 지역에 있는 기독교연합회와 성서화운

동 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서 사무총장 홍호수 목사(정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이사장)가 통합국민대회 행사를 소개했다. 행사는 오는 6월 1일 서울광장 건너편 대한문 앞에서 오후 12시 20분에서 12시 55분까지 공연팀 리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부 한국교회 특별연합기도회(오후 1시부터 2시 20분) ▲2부 개회식(오후 2시 20분부터 3시) ▲3부 국민대회(오후 3시부터 4시 30분) ▲4부 퍼레이드(오후 4시 30분부터 6시) ▲5부 문화행사(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순서로 진행된다.

다음으로 특별기도회, 무대시설, 안내질서 준비, 퍼레이드, 부스, 기수단, 의료지원 등 소개가 있었다.

◆“특별기도회 아닌 일상기도회 돼야”

2024 특별기도회에 대해 소개한 특별기도위원장 안석문 목사(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상임총무)는 “기독교인이 8년 후 절반 가량 떨어진다”는 통계를 보며 “통계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이다. 복음의 인프라가 많이 쳐도 전도가 안 되며, 10~20대들이 교회를 등지고, 크리스천이 많아져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부지기수”라며 “영혼 구원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복음의 인프라를 복구는 일에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안 목사는 “사실 특별기도회가 아니라 지속해서 해야 되는 일상기도회가 되어야 한다”며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동성애퀴어축제 반대·성혁명교육과정 반대·학생인권조례 반대·아동기법 반대·생활동반자법 반대·대규모동성모스크건립 반대·아성명보호법 제정·청소년성중독예방운동 등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이어 퍼레이드에 관해 퍼레이드 위원장 강충영 이사(피스트코리아)의 소개가 있었다. 퍼레이드 행진 경로는 대한문 - 송례문 - 서울광장 - 광화문 - 대한문으로, 대한문 진행방향 전차로(2천 명 이하 1개 차로, 4천 명 이하 2개 차로, 버스차로 제외)로 진행된다. 퍼레이드는 왕복 2.2km이며, 대학로에서 세종대로 사거리로, 광화문 교차로로 모두 편도 전 차로 안에서 진행된다. 그 다음 두 번째 행진은 시청 교차로에서 송례문 교차로, 서울역 3번 출구까지 왕복 1.6km이다.

그리고 한국교회 청년들이 퍼레이드 기수단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했다. 이에 대해 홍호수 목사는 “주의 청년들이 직접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참여함으로써 한국교회에 처한 위기를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총 36개 교회에 1차적으로 5천 명의 청년 기수단을 모집하기

위한 요청이 이미 진행 중이다.

또한 행사 중에는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단체들의 체험 부스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해 30곳에서 올해는 50곳으로 늘었고, 안전을 위해 25개의 안내질서 팀이 50선 광화문역과 1호선 시청역 주요 출구 8곳에 배치될 예정이다. 또 의료본부 1곳 추가로 배치되어 무더운 날씨나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서울 아산병원서울 이대병원 등 전문 의료진이 참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서울역 서울대입구에서 열린다. 기자회견은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서울역 서울대입구에서 열린다. 기자회견은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서울역 서울대입구에서 열린다.

◆“통합국민대회, 성혁명차별금지법 저지하는 시대적 사명 감당해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성혁명,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2,600여 단체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성혁명·차별금지법은 동성애·성전환·아동 및 청소년 성행위·낙태행위 등 악행들을 정당화하고, 이 악행들을 반대하는 신앙과 양심의 표현마저 인권침해로 몰아 금지시키는 전체주의 독재사회를 초래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며 “성혁명이 성공하면, 차별금지법이 정당화하는 이 악한 죄악들이 모든 사회 영역에 확산되고, 미래세대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오염시키고 파멸시켜,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 사회, 국가를 무너뜨리게 된다. 이는 선량한 성윤리를 지지하는 다수 국민들과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이 악한 성혁명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강력하고도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해온 것은, 매년 서울광장 등에서 개최되는 동성애옹호 및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집회인 퀴어행사를 막아서 온 우리 국민대회였다”며 “2022년에는 10만 명이, 2023년에는 15만 명이 이상이 우리 반대대회로 집결한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2024년에는 서울퀴어반대 통합국민대회에 20만 이상의 성도들과 국민들이 집결하여 성혁명과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사회 국가의 선량한 성윤리를 반드시 지켜내어 건강한 국가 사회를 지켜내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2024 통합국민대회에는 한기총·한교연·세기총 외에 한교총이 연합단체장으로 포함되었다. 통합국민대회 준비위는 한교총에 대해 대회장 오정호 목사와 한교총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가 협의를 통해 한교총이 통합국민대회와 함께 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장요한 기자

한교연, 전쟁기념관서 ‘리멤버 투게더’ 2차 행사 진행

국방부 국악대·의장대 공연 퍼레이드 참관하고 격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최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리멤버 투게더’ 두 번째 행사를 진행했다. ‘리멤버 투게더’는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실종자 또는 북한 포로로 잡혀 생사를 알 수 없는 참전용사의 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하는 사업으로, 한교연이 ‘호국 보훈의 달’ 6월에 있을 본 행사에 앞서 사전 행사로 진행하고 있다.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와 명예회장 김병근·김바울 목사, 삼일회장이 이영한 장로·홍정자 목사 등 임원과 교단 총

무 등 40여 명은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악대 연주와 국군 의장대 퍼레이드를 참관하고 이들 병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육·해·공·해병으로 구성된 국방부 국악대 공연에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 500여 명이 참관해 30여 분간 이어진 연주 내내 뜨거운 박수로 호응했다. 이어 전통복장을 한 의장대와 기수단이 입장하며 국방부 의장대 시범 공연이 30분간 이어졌다.

한교연 임원들은 한 시간 여 공연이 끝난 후 이들을 격려하는 별도의 시간



한교연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리멤버 투게더’ 두 번째 행사를 진행했다. ©한교연

을 가졌다.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는 용사들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한국교회가 이들을 위해 늘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교연은 6월 25일을 즈음해 미국에서 6.25 참전 용사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는 예배와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행복한농촌, 함께가는 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미드웨스턴 한국부 존 바클레이 교수 초청 강연

세계적인 석학다운 성경적 해석의 통찰력이 빛난 컨퍼런스

‘교회를 위하여’의 가치로 교회를 위한 실제적 신학교육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에서 열여덟 번째 온라인 컨퍼런스를 최근 개최했다. 특별히 미드웨스턴 한국부가 올해 가을학기부터 시작하는 신약학 박사과정의 개설 기념으로 세계적인 신약학 석학이자 더럼대학교의 라이트풋 석좌교수인 존 바클레이 교수를 초청하여 ‘주의 만찬과 사자의 몫(The Lord’s Supper and the Lion’s Share)’이라는 제목으로 세계적인 석학다운 통찰력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7-34절을 면밀하게 다루었다.

바클레이 교수는 본문에 묘사하는 고린도 교회의 공동 식사 현장에 대해 왜 바울이 분노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 현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 사건이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사건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본문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주는 의미

를 새롭게 고민해볼 것을 권했다. 지금껏 이 본문에 대한 연구는 타이센, 람페, 클로펜보르그의 경우처럼 역사적 재구성의 방식으로 해석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반해 바클레이 교수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 조나단 패리와 모리스 블로흐와 같은 인류학자들이 제시하는 세 가지 거래 질서(시장 교환, 사회적 교환, 신성한 교환)에 대한 모델을 본문 해석의 틀로 사용했다.

이 계층적 거래 모델에서는,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전환되는 경우(예: 개인적 시장 교환이 긍정적인 사회적 목표에 기여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어지지만, 상위 단계에서 하위 단계로 전환되는 경우(예: 농부가 신을 위해 작물을 드리는 관습을 무시하고, 이익을 남기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어진다. 이 관점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의 공동 식사(주의 만찬)는 온 교



미드웨스턴 한국부 존 바클레이 교수 초청 강연이 온라인으로 열렸다. ©Zoom 캡처

회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성한 교환’의 모습이 아닌, 다른 지체를 희생시켜가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위 단계의 거래 질서로 격하된 것이었고 때문에 본문에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 바클레이 교수의 해석이다(고린 11:21, 22). 그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 데 고대그

리스의 우화인 ‘들나귀와 사자의 몫’을 사용하는데, 요약하자면 함께 사냥한 노획물을 나누는 과정에서 사자는 자신이 모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 파르타였던 들나귀를 쫓아버린다. 자신의 몫이 아닌 것까지 탐하는 사자의 모습과 고린도 교회 공동 식사의 자리를 오버랩한 것이다.

바클레이 교수는 또한 본문 23-25절에 등장하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에 오직 ‘예수님과 너희’라는 청자만이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내 몸(24)이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주의 만찬을 통해 ‘너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 하셨다(25). 본문 26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너희’의 대상을 당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고린도 교회 성도)’로 자연스럽게 연결함으로써,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전통이 오늘날에도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 여전히 동일한 신성한 교환이 되어야 함을 밝힌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동 식사 즉 주의 만찬은 물질적 충족이나 공평을 지향하는 자리가 아니라, 만찬의 의미가 주님께 속한 신성한 교환’의 정의에서부터 해석되어야 한다고 바클레이 교수는 강조했다.

90분의 강의와 30분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본 컨퍼런스는 바클레이 교수의 제자인 김형태 교수(주님의보배 교회 담임/미드웨스턴 신약학 교수)가 통역으로

참석했다. 전 세계에서 190여 명이 줌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참여한 이날 강연은 세계적인 거장의 신학 본문에 대한 놀라운 해석과 통찰로 많은 참여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미드웨스턴 한국부 신약학 박사과정을 기대하게 하는 기회도 되었다.

미드웨스턴은 남침례회(SBC) 산하 신학대학원으로 북미 주류 신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와 미국 내 중북부 지역 종합대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최고 인가기관인 HLC(Higher Learning Commission)에 모두 정식 인가되어 있다. 현재 한국부는 720여 명으로 한국어로 제공하는 학위 과정 가운데 북미 최대 규모이며, 실제적이면서도 탁월한 전문성이 검증된 교과과정 및 교수진으로 정평이 나 있다. 미드웨스턴 학위과정 입학은 학교 웹사이트(www.mbts.edu/ks)를 참고할 수 있고 김동규 팀장(이메일: ks@mbts.edu; Tel: 816-414-3754)에게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제공: 미드웨스턴 한국부

복음중심의 설교, 복음중심의 목회의 자리를 지키며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과 주최 ‘2024 목회세미나’가 오는 6월 4일 MiCA (Missional Church Alliance) 공동 화요일,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개최된 강사로는 캐나다 그레이스한인교회의

박신일 목사를 초청해 ‘복음 중심의 설교자’라는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정오 12시까지 2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신일 목사는, 2003년 그레이스한인교회를 개척해 지난 20년 동안 밴쿠버에 여섯 개의 분립 교회를 세우고 한국에 한 개의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행생의 순례자’, ‘은혜가 걸어오다’, ‘말씀 앞에 머물다’ 등 여러 저서로도 잘 알려져 있다.

MiCA의 대표 디렉터 이상훈 총장(AEU 미성대)은 “MiCA는 건강하고 본질적인 교회 회복을 위한 교회들의 연합 운동을 지향해왔고 그 일환으로 다양한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통해 지역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컨텐츠와 멘토링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말하며 “박신일 목사는 탁월한 목회자이자 설교자이고 그 영향력 아래 그레이스 한인교회는 북미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건강한 교회 중 하나로 우뚝 섰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복음중심 설교와 목회를 통해 사역 갱신을 이루고 싶은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또한 “세미나는 대중집회 형식이 아니라 소수 목회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박신일 목사의 설교론과 방법론을 나누고 설교자들이 가진 고민을 함께 나누는 밀도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민교회의 상황이 여러모로 좋지 않지만, 이를 때릴수록 가장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의 방향이 더 선명히 제시되어야 하는 만큼, 복음중심 설교가로서 빛이 되는 박신일 목사를 모시게 돼 기대가 된다”는 소감과 함께 “미주복음방송이 이민교회와 이민 성도들의 영적 갱신과 부흥을 위해 쓰임 받는 일에는 앞으로도 주저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선착순 40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목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5월 28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 문의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kgbc.com) 메인 배너의 ‘2024 목회세미나를 클릭해 들어가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QR Code를 통해 미주복음방송 전화 (714-484-1190) 문의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시애틀 연합장로교회 박영희 원로목사 소천

천국환송예배 5월 11일 오전 11시,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시애틀 연합장로교회 박영희 원로 목사(사진)가 지난달 28일 노환으로 소천받았다. 향년 96세.

1927년 평안남도 중화군 해암면에서 출생한 고인은 1953년 서울 장로교신학교를 졸업한 뒤 육군 군목을 거쳐 부산 초읍교회와 온양온천 제1장로교회 등지에 목회하다 1963년 도미했다.

1969년 아이오와의 더 뷰크 신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같은 해 시

카고 연합장로교회를 개척해 1981년까지 12년 동안 목회했다.

고인은 1981년 5월, 시애틀 연합장로교회에 2대 담임으로 부임해 미국장로교회 헌법을 채택하고 1983년에는 시애틀 한인복음교회와 통합을 이루며 부흥의 기초를 놓았다. 이후 성전건축과 교육관 대지를 구입하며 현 교회의 기틀을 다졌다.

고인은 목회 중에도 학업을 이어가 1984년에는 타코마 Faith Evangelical Lutheran Seminary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故 박영희 목사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

회 재임 기간 북한과 쿠바 등 해외선교에도 힘썼으며, 유능한 성품과 고상한 인격으로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로부터 항상 존경받았다.

1998년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서 은퇴한 후에는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워싱턴주 고문과 시애틀 원로목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유가족으로 장남 박성준 장모와 차남 박성환 씨 등 2남이 있다.

천국환송예배는 5월 11일 오전 11시, 시애틀 연합장로교회에서 심우진 목사의 집례로 거행되고, 하관예배는 같은 날 오후 12시 30분 아카시아 장례식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LA 113기 아버지학교 개설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LA 총현선교교회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에서 개최하는 LA 113기 아버지학교가 오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LA 총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에서 열린다.

‘아버지학교’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슬로건 아래 아버지로서의 올바른 정체성과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아버지들이 자신의 아픔과 약점을 털어놓고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다. 또한 아버지로서의 정체성과 삶을 재조명하고, 올바른 아버지상을 정립해 신뢰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버지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아버지학교는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사명 등을 주제로 진행되며, 교회에서 진행되지만 비기독교인도 참여할 수 있다.

아버지 학교를 준비하는 국윤권 목사는 “이 땅의 아버지들이 경건한 남성이자 가정의 지도자임을 깨닫고, 가정의 연합과 하나 됨의 주역임을 배우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초대했다.

접수는 온라인 bit.ly/fatherschool_LA113(클릭)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비는 150달러로 Zelle(fatherschoolamericas@gmail.com) 송금이 가능하다. 식사와 간식이 제공된다.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 info@fatherschool.org(아버지학교 미주본부), 전화 206-334-2008(김기섭 운영위원장), 818-549-9191(총현선교교회)



한편 한국에서 1995년부터 시작된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전 세계 75개국, 300여 도시에서 43만여 명이 수료했을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남미를 포함하는 미주에서는 2000년 개설 후, 1천 200회의 아버지 학교가 열려 3만 5천여 명이 수료하는 등 전 세계에서 수많은 아버지와 가정을 회복시키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짝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운 피부 나이

10.6%
볼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층 개선

RETINOL SUPER BOUNCE SERUM

RETINOL 4X

IOPE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페' 채널 판매처 | 전국 아리따움 및 올리브영 매장
| *사용 7일 후, 미세 진동 세럼 사용 | 제품 12인 | 2023.01.25~2023.03.30 | (사)아이오페 | (주)아이오페 | (주)아이오페 | (주)아이오페

“주여, 저희가 방관했던 것 회개하오니 주의 나라 임하게 하소서!”

‘제73회 국가기도의 날’ 남가주 연합기도회 열려

“지난 10년간 미국에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지난 10년간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크리스천 50% 이상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미국이 다시 믿음의 나라로 바뀌어지고 전 세계 자유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하길 원합니다. 미국이 죄를 지은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방관했습니다. 주여, 캘리포니아가 바뀌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가주 성도들이 나성순복음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 73회 국가기도의 날 남가주 연합기도회가 5월 2일 오후 7시,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신승훈 목사(주님의 영광교회)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마 6:9-10)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그는 “미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낙태를 지지한다. 8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를 금지하면서 대통령 캠페인을 펼쳤었다. 8년 만에 이번에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주별로 알아서 하라고 한다. 이슈를 삼으면 떨어질 줄 아나까 주별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면서 “매춘도 권리라고 한다. 매춘행위를 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15세 이상이 매춘을 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한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라고 했다.

그리고 “타고난 것이 성이 아니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성이라고 한다. 남자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목욕탕에 갈 수 있는 것이다. 남자가 여자 운동경기에 참여할 수 있고, 성전환 수술을 미성년 학생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만일 부모가 반대하면 신원조회에 들어가서 아이를 빼앗길 수 있다”라면서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주실 줄 믿는다. 아무리 흠탕물이 많아도 한곳에 맑은 물이 나오면 그 연못은 언젠가 맑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회개운동에 대해 기도를 한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는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 이 나라가 소동과 고모로로 변화되고 있다. 대마초가 합법화되는 시대에 대마초는 마약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할 수 있다”라면서 “우리가

부르짖는 밤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한 강순영 목사(전 JAMA 대표)는 “리더들의 영향력이 커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 특별히 캘리포니아가 악법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며 “교회가 희망이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가정과 사회가 바뀌어질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다.

미국의 중요한 현안 문제들을 위해 기도한 고태형 목사(선한목사교회)는 “가정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 할리우드가 비성경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르침을 가지도록 기도하자.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자”고 했다.

기도가 필요한 나라들과 그룹들을 위해 기도한 송창민 목사(에브리데이)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는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 이 시대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유일한 소망은 교회인 줄 믿는다”라고 말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자. 복한이 영적으로 황폐화되어있다. 칠홍과 같이 어두운 그림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도록 기도하자. 전쟁 중인 나라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자.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훨씬 신앙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밝게 빛나는 법이다. 자녀들이 시대와 역사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도록 기도하자”고 이야기했다.

이번 국가기도회는 “Lift up the Word Light up the World”, “말씀을 받들어 올려 세상을 밝히소서(삼하 22:29-31)”라는 주제로 열렸다.

기도회는 1부 예배와 2부 기도회로 진행됐으며, 1부 예배는 국유권 목사(중현선교교회)의 사회,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가 기도,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의 환영인사, 신승훈 목사(주님의



제73회 국가기도의 날 남가주 연합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토마스 멩 기자



뜨겁게 기도하는 예배 순서자들의 모습. ©토마스 멩 기자

영광교회)가 설교를 맡았다. 2부 기도회는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김은목 목사(평화교회), 이수호 목사(올림픽장로교회), 크리스틴 정 자매(사우스랜드교회), 양경선 목사(샘물교회), 유수연 사모(ABC교육구 교육위원), 강순영 목사(JAMA), 최영봉 목사(남가주교회 협회), 김재권 장로(미주성서회 이사장), 고태형 목사(선한목사교회), 손창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 오윤태 목사(순무브먼트), 김철민 장로(CMF가정선교회), 안현숙 목사(CBS중보기도팀장), 김기동 목사(세리토스중만교회), 최금옥 권사(남가주동신교회), 김시은 목사(용기장이교회), 박복길 장로(나성순복음교회), 그레이스 유 집사(LA시 10지구 시의원 후보) 등이 참여해 기도회를 인도했으며, 모든 순서는 송정명 목사(미주성서회 공동대표)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미국 국가 기도 날은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제안하고, 1952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 의회가 공동 결의해 트루먼 대통령이 공동 결의안에 서명함으로써 제정됐다.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전통으로 지켜져 오고 있으며, 1988년 레이건 대통령이 5월 첫 번째 목요일을 기도의 날로 정한 이래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가적 기도회다.



신승훈 목사가 설교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토마스 멩 기자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 ©토마스 멩 기자

무신론자들에게 소송을 당해 2010년 위험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2011년 항소 법원이 이를 뒤집으며 적극적으로 부활했다. 당시 위험 판결 후에도 오바마 대

령은 공식적으로 ‘국가 기도 날’을 선포해, 이 행사가 미국 정치권에서 갖고 있는 위상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토마스 멩 기자

300용사 부흥단 “기도 용사들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제1회 300용사 부흥단 ‘남가주 핏볼 기도회’가 엘에이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다.

300용사 부흥단(총재 정주갑 목사)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임으로,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도모하며, 최근 뉴욕 방문에 이어 엘에이를 방문해서 전 세계 한국교회 부흥을 사모하고 있다.

1일 기자회견에서 정주갑 목사에 따르면 300용사부흥단은 코로나19가 유행을 할 때 출발을 알렸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많은 분을 참여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됐다”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핏볼 기도회라는 이름을 이어 붙이게 됐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는 등 예뻐할 수 많은 기적을 체험했다. 뉴욕에서 엘에이까지 연결시켜 주시면서 한걸음 한걸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느끼고 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 기도회는 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눈다. 나라의 안정과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라면서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300용사 부흥단이 1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토마스 멩 기자



정주갑 목사 ©토마스 멩 기자

현재 300용사 부흥단은 건강한 신앙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300용사 부흥단 ‘남가주 핏볼 기도회’는 1일 저녁 지구촌사랑의교회와 2일 오전에 산타모니카 및 게티박물관 방문을 시작으로 3일 오후 2시에 희망찬교회, 4일 오후 2시 솔로몬대학교 졸업식, 5일 오전 11시 LA광명교회, 6일 오전 10시 30분에 탕크기도원, 7일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예수사랑세계선교회에서 각각 기도 집회가 열린다.

300용사 부흥단 남가주 부부장은 백지영 목사가 임명됐다. 토마스 멩 기자

KB 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결제에서 라이프까지

됩니다

다 되는 페이 KB Pay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40402-01381-ADP (2024.4.2~2025.4.1)

* KB 국민카드

미국 '국가 기도의 날', "말씀 높여 세상을 밝히자" 주제로 개최

제73회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을 기념하는 기도 모임이 미국 전역에서 지난 2일에 열렸다.

이 행사는 1952년 의회와 트루먼 대통령이 공식 제정한 연례 행사로, 매년 5월 첫 번째 목요일 오후 8시(동부시간 기준)에 진행된다.

올해 방송은 사무엘하 22장 29-31절을 토대로 "말씀을 높여라 - 세상을 밝히라"(Lift Up the Word - Light Up the World)를 주제로, 뉴욕 브루클린 기독교 문화센터(Christian Cultural Center)의 A.R. 버나드 목사와 국가 기도의 날 태스크포스 회장 캐시 브란젤이 함께 진행했다.

특별 게스트로는 매튜 웨스트, 오스기니스, 로버트 스티븐스 주교, 켈 헤리스,

토니 퍼킨스, 더그 스티어링, 다연 오글, 제프 에커트, 글렌 셰퍼드 등 교계 유망 인사들이 참석했다.

브란젤은 영상 플랫폼 비메오(Vimeo)에 올린 메시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이 모임을 주최하는 1만 8477명의 코디네이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도 개최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흥분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도시, 지역, 나라가 조금 더 어두워졌다고 느낀다면, 여기 제대로 찾아오신 것이다. 말씀을 높이고 세상을 밝히기 위해 모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버나드 목사는 기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의 약 7만 개의 교회 및 단체들에 안부를 전했다. 기독교문화센



국가 기도의 날 태스크포스 회장인 캐시 브란젤(오른쪽)과 뉴욕 브루클린의 기독교문화센터 A.R. 버나드 담임목사. ©국가 기도의 날 영상 캡처

터는 브루클린에 약 1만 4천여 평 규모

의 캠퍼스를 가진 대형 교회로, 3만명의 신앙의 교인이 출석하고 있다. 버나드 목사는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

을 알고 있어 매우 기대된다. 그것이 기 초이며,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을 위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모임에 모이게 된 것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순간"이라며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은 법이다. 우리 국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전했다.

국가 기도의 날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들은 1789년 이래로 국가가 직 면한 위기마다 150번 이상의 국가 기도의 날, 치욕의 날, 금식의 날, 감사의 날 등을 통해 기도를 촉구해왔다.

국가 기도의 날 태스크포스팀에 의하면, 이 행사는 "모든 배경을 초월하여 다양한 시민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왔다고 한다.

웹사이트는 "국가 기도의 날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중대한 결정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방식을 기억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로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기도의 날을 연례 행사로 제정하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처음과 동일하게 오늘날 미국에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기도의 날은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후 휴일과 유사하게, 대부분의 미국 달력에 표시된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약 4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주최한 3만 건이 넘는 행사에 약 2백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진 김 기자

성경적 세계관, 자칭 美기독교인 중 6%만 가져

새로운 조사에서 전체 미국인의 4%와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답하는 미국 성인 중 6%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결과는 에리조나 기독교 대학 문화 연구센터(Cultural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2024 미국인 세계관 현황'(The American Worldview Inventory 2024)에서 발표되었다.

보고서는 "일반적인 미국 성인은 세계관 순정주의자가 아닌 본질적으로 세계관 도용자로, 9개의 인정된 세계관의 신념과 행동을 개인적인 세계관 혼합물로 결합시킨다"면서 "이는 미국의 주류 세계관이 미국 성인의 92%가 자신의 주된 삶의 철학으로 혼합주의를 선택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미국 성인의 88%가 혼합주의적 세계관을 가진다고 답했다.

또한 보고서는 성경적 세계관과 충돌하는 가장 일반적인 세계관 신념 10가지를 나열했다. 미국인의 46%는 "결혼한 부부가 영원히 서로에게 묶인다"는 물론 교적 신념을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또 미국 성인의 46%는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지만, 누적된 삶의 선택의 결과로 선하거나 악하게 된다"는 신념에 동의했다. 이는 도덕적 치료적 이신론, 세속적 인본주의, 애니미즘 사상과 연관되어 있다.

응답자의 35%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자신의 이성과 감정이 가장 많이

의지한다"는 세속적 인본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사탄주의적 관점에 동의했다.

또한 미국 성인의 31%가 "인간은 동물, 식물, 자연을 지배할 권리가 없으며, 그들과 조화롭고 상호존중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신념을 받아들였다. 또 다른 31%의 응답자들은 "모든 동물, 식물, 마름, 물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러한 신념은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범신론, 몰몬교, 위카 및 애니미즘 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반면, 성경적 세계관은 "결혼은 지상의 죽음 이후에 끝난다"고 보며,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며, 우리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분의 은혜로 받아 넘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며 성경을 통해 인간에게 진리를 전달한다"고 정의한다. 이 세계관은 "인간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창조한 다른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인간에게 부여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동물과 식물 및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불멸의 영혼을 가진다"고 가르친다.

미국 성인의 상당수가 받아들이는 성경적 세계관과 반대되는 신념에는 "메시아가 약속된 것을 믿으며,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지상을 처음 방문할 것"이라는 유대교 사상(28%)이 있다. 또한 "더 높은 힘이 존재할 수 있지만,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포스트모더니즘 이념(26%), "성공적인 삶의 가장 좋은 지표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도덕적 치료적 이신론과 몰몬교 신앙(24%), 그리고 "진리의 기초는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증거"라는 세속적 인본주의적 신념(23%)도 해당된다.

이러한 신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며, 재림과 동시에 그분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구세주로 부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증거"라는 성경적 세계관과 모순된다. 성공에 대해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과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원칙에 대한 끊임없는 순종"이며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없으며 하나님이 그분의 본성과 말씀으로 진리를 정하셨다"고 정의한다.

미국 성인의 21%는 우주가 "인간에게 결코 이해하거나 발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성되었다"는 포스트모더니즘 및 세속적 인본주의적 신념을 받아들였다. 반면,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우주 창조가 성경에 나와 있다고 선언한다.

문화연구센터는 성경, 진리와 도덕, 신앙 실천, 가족과 생명의 가치, 하나님, 창조와 역사, 인간의 성품과 본성, 생활양식, 행동과 관계, 목적과 소명, 죄와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반으로 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24년 1월에 미국 성인 2000명으로부터 수집된 응답을 바탕으로 했다.

유진 김 기자

테네시 주지사, '태아 발달 과정 교육 의무화' 법안 서명

미국 테네시주가 공립학교가 학생들에게 태아 발달 과정을 기록한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도록 의무화한 두 번째 주가 되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빌 리(Bill Lee) 테네시 주지사는 지난달 23일에 하원 법안 2435호에 서명했다. 이번 승인은 올해 3월 테네시주 하원에서 67 대 23으로 통과된 데 이어, 4월 초에 상원에서 27 대 6으로 통과되었다.

테네시주는 양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모든 공화당 의원이 법안을 지지하고 모든 민주당 의원이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인간의 성장, 발달 또는 성을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가족생활 교육 과정에 태아 발달 초기에 뇌, 심장, 성기 및 기타 중요한 기관의 발달을 보여주는, 최소 3개 이상의 고품질 컴퓨터 생성 애니메이션 또는 고화질 초음파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이 법안은 '아기 올리비아를 만나세요(Meet Baby Olivia)'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시청각 자료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영상은 수정과 인간 발달의 단계를 보여주며, 미국 태아 생명 옹호 단체 '라이브액션(Live Action)'이 공인받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협력하여 제작했다.

라이브액션 회장 리아 로젠은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이 법안은 100만 명이 넘는 테네시주 공립학교 학생들이 라이브액션의 '베이비 올리비아'와 같은 세



©Kelly Sikkema/ Unsplash.com

계적인 교육 자료를 사용하여,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배울 수 있도록 보장한다"며 "테네시주는 노스다코타에 합류하여 학교에서 인간 개발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올리비아라는 소녀를 예시로 들어, 임신이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이며, 출산이 '9개월간의 태아 발달 과정이 완료되는 순간'으로 설명한다.

노스다코타주는 공립학교가 학생들에게 태아 발달에 관한 영상을 보여주도록 의무화한 최초의 주이다. 공화당 소속 더그 버건(Doug Burgum) 노스다코타 주지사 서명한 하원 법안 1265호는 상원에서 37 대 9, 하원에서 75 대 16으로 통과되었으며, 양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다.

테네시주의 하원 법안 2435호의 통과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브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Dobbs v. Jackson) 판결 이후에 나온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헌법에 여성의 낙태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50개 주는 자체 법으로 낙태를 규제하고 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은 낙태를 임신 초기로 제한하거나,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이 중 일부는 주 판매소에서 가짜귀를 면제하거나, 아동 인양과 관련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들은 메디케어(Medicaid) 혜택에서 낙태 보장을 확대하여 여성의 낙태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유진 김 기자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노란우산 남보라 정준호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번호 제24-08호(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저축보험 연차) 노란우산은 예금저축보험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 가입자가 가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법 제120조에 따라 정부 지급에 필요한 차관보증을 위해 매 결산마다 납부공금을 포함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이후 직장선교 활성화 어떻게 할까”

직목협, ‘AI 시대의 직장선교 전략 세미나’ 개최

팬데믹을 계기로 AI 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함께 AI 기반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직장선교 전략과 사례들을 나누는 ‘AI 시대의 직장선교 전략 세미나’가 지난 30일 서울 중구 퇴계로 남대문교회에서 개최됐다. 한국기독교직장선교목회자협의회(직목협)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AI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직장선교 목회자들을 위한 재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렇듯 매일수룩 직장선교의 본질에 집중하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직목협 대표회장 손윤탁 목사는 이날 서면 인사말을 통해 “세상을 선도해야 할 교회는 챗GPT-4의 등장과 같은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며 “성경과 역사에 근거하면서도 실제적인 전략들이 논의돼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는 지도자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서기 이승현 목사의 찬양과 인도로 진행된 개회예배는 사무총장 고광 목사의 기도에서 시작됐다. 김창영 목사가 ‘AI 시대 지혜로워야 한다’며 10:16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창영 목사는 “우리는 지혜와 순결함이라는 두 가지를 겸비하여, 삶의 전반에 등장한 AI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직장선교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룩한 미션을 받았다”라며 “인공지능, SNS 시대, 스마트 시대라는 말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오프라인 선교사역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역을 여는 창조적 변동역군(Change Agent)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상이 변하고 과학이 변해도 단 하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목상을 승화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AI가 하지 못하는 자유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직전(14대) 상임회장 김윤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일터서역과 선교’를 주제로 첫 강의를 전한 잡뉴스솔로몬서치 대표이사이자 솔로몬일터교회 담임목사, 솔로몬교회성장연구소 소장인 김동연 목사(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일터교회신학 교수)는 일단 “AI에 대해 너무 두려움에 떨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우리는 종교개혁자들과 순한 선교사들이 목숨을 초개같이 내어놓으며 지켜낸 복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우회를 뛰어넘는 일터교회, 흘려진 예배의 저변 확대가 제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자 중차대한 사명”이라며 “130만 개 법인 중 10만 개 특수법인과 40만 개 스타트업 기업을 제외한 80만 개를 영입이기업으로 본다면, 이 중 4분의 1인 20만 개에서 지역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등 평신도 영적 리더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중 예배를 회복하는 저변확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터교회는 CEO와 목회자가 투트랙으로 운영하면 된다. 지역교회 항존직들인 CEO가 핵심이 되고, 대한민국에 배출된 약 30만 목회자 중 사역자가 있는 담임목사, 부교역자, 선교사 등 10만 명을 제외하고, 사역자가 없는 20만 명의 목회자가 윤리, 금전, 산업 전문성 등 체계적인 훈련을 아카데미에서 받고 풀타임 사목으로 파견돼 직장 사역의 회복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점심 교제 이후에는 ‘직장사역과 영성’을 주제로 직목협 12대 상임회장 김창영 목사(부천생명교회 원로목사), ‘직장사역과 특제전도’를 주제로 직목협 14대 상임회장 김윤규 목사(소태그리스도의교회



왼쪽부터 설교를 전한 상임회장 김창영 목사, 강의를 맡은 김동연 목사, 김창영 목사



강의를 맡은 김윤규 목사, 박형철 목사, 홍순혁 목사

담임목사, 평택외국국제선교회 대표 선교사, 세직선 지도목사), ‘직장사역과 강해’를 주제로 국제강해설교연구원 원장 박형철 목사, ‘직장사역과 코치’를 주제로 라이프코칭랩 대표 홍순혁 목사(예수민는교회 담임목사)가 각각 강의를 했다.

김창영 목사는 “직장선교 사역은 단순히 예배와 성경공부,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모임을 통해 깊은 영성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섬기며 나누는 ‘생명 공동체’로 만들어야 하며 나누는 ‘생명 공동체’로 만들어야 하며 나누는 ‘생명 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시대가 되고, 인기 있는 전문직업이 AI로 대체된다고 예상하지만, 영적인 분야는 AI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와 목회자, 성도는 사회와 직장에서 기독교 영성을 역동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독교 영성을 체험하고 이를 직장 사역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먹고, 새기며 스매일 회개하고 기도’로 성령 충만하며 신실로 기도하는 은사를 체험하고 활용하며 영성 모임에 참여하여 함께 연구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영역 무장으로 승리하는 ‘선포기도문’을 활용하여 참석자들은 함께 기도했다.

김윤규 목사는 “직장선교에서는 한 영혼을 위한 복음전파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365일 특제전도” 방법으로 직장 내 회사자 관계전도, 직장 크리스천 중견 사원을 대상으로 한 특제전도, 퇴근 후 이동 시간, 출장 기간 등을 활용한 특제전도, 외국인 직장인과 타종교인 특제전도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김 목사 스스로가 혈액투석과, 암, 폐렴, 교회 화재 등 여러 고난 중에서도 365일 특제전도의 사명을 앞장서서 실천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윤규 목사는 이와 함께 제자 삼는 직장선교 전략으로, 전도(E1), 확립(E2), 무장(E3), 파송(제자훈련 후 직장)으로의 제생산 사역을 강조하며 “아무리 많은 강이나 전도 이론을 들어도, 오늘 한 명에게라도 전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명령인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며,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한 영혼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직장선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형철 목사는 이날 직장사역에서도 중요한 성경 중심적 강해설교의 기초와 정인 방향성, 객관성, 시제성을 소개했다. 박 목사는 “구약 성경의 전체 방향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며, 사복음서는 현재 우리와 함께하시는 메시아 예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술하며, 서신서는 나사렛에서 사역하시던 예수께서 우리 기대했던 메시아임을 나열하고, 요한 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에 관한 내용으로, 모든 성경의 방향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한다”며 설교 역시 성경의 방향을 따라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성경해석과 적용이 감정적이어서는 안 되며, 예수를 모본으로 삼아 가르쳐야 한다”며 객관성을 갖춘 것을 당부했고, 마지막으로 “사제성을 분석할 수 있어야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혼동하지 않고 ‘월인’과 ‘월결’, 수단과 목적, ‘비유’와 교육, ‘종교개혁’, ‘그림자’와 본질’ 등 6가지 도구로 우리는 모두 예수를 증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순혁 목사는 분당 지구촌교회에서

청년, 대학생 목회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직장사역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코칭에 대해 소개했다. 홍 목사는 “코칭은 개인적, 전문적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고,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코칭 프로세스와 스킬로 ‘GROW 모델’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경험, 질문, 칭찬과 인정 등의 대화 기술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완성도 있는 코칭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홍 목사는 특히 “GROW 모델은 코칭 주제 및 목표 설정(Goal), 현재 상태 점검(Reality), 해결 방안 탐색(Optional), 실천 계획 수립(Will)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일반 대화와 코칭 대화의 비교, 코칭사례 연습, AI를 활용한 코칭 활동 사례 등을 소개했다.

직목협은 이날 세미나에 처음 참석한 회원들에게는 수료증을 전달했다. 행사 실무를 맡은 사무총장 고광 목사는 “직장선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사역의 접촉점이 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얻은 뒤 일터현장에 가서 평신도 직장선교 사들과 수평적 관계에서 동역할 수 있도록 돕는 장을 계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세미나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한국위기관리재단, 정보와 네트워크 포럼 10일 개최



한국위기관리재단이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빈발하는 자연재해, 사건 사고 증가로 위기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대를 맞아 ‘적극적 위기관리를 위한 정보와 네트워크 포럼’을 5월 10일 12시 안양 새중안교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가 한다.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 리더, 위기관리 담당자 및 관심자들을 위해 준비한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위기관리재단 이사장 황덕영 목사(새중안교회 담임목사)가 ‘한국위기관리재단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인사한다. 이후 마민호 한동대 교수가 ‘적극적 위기관리를 위한 선교 정보 네트워크 구축, 김정현 한국위기관리

재단 국제코디가 ‘선교현장 위기관리 시스템과 네트워크 방안’, 이영 한국위기관리재단 연구원장이 ‘선교사 위기관리 관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조별 및 전체 토론으로 진행된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선교의 위기 예방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지희 기자

인천HD현대인프라코어 직장선교회, 창립 44주년 기념감사예배 드려

인천HD현대인프라코어 기독교직장선교회(이하 HD선교회)가 창립 44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기념감사예배를 사내 교회에서 드렸다.

HD선교회는 매주 월요일 점심예배와 수요일 묵상모임, 목요일 제자대학 강의 사역을 하면서 사내 회원들의 신앙생활과 선교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말씀 충만한 한해가 되자’라는 목표로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박진영 HD선교회 회장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는 이영근 장로의 기도 후, HD선교회 임원들이 특송으로 은혜를 전했다. 이어 진상철 지도목사는 ‘기념이 되는 일꾼’(마 6:6-12)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한직



이날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직선

선) 이훈 대표회장이 축사, 세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세직선) 박상수 대표회장이 인사하고 진상철 지도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지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지켜요!

국민안심이 기준입니다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구분 사용하기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

익혀먹기

육류 중심온도 75℃ (어패류 85℃) 1분 이상 익히기

끓여먹기

물은 끓여서 먹기

세척·소독하기

식재료·조리기구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냉장식품 5℃ 이하 냉동식품 -18℃ 이하

동성애자 안수 허용 UMC 결정에 세계감리교회 “우리와 무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UMC 총회에 참석한 감독들. ©UM News

“예수 가르침과 기독교 2천년 역사 고백에 뿌리”

연합감리교회(UMC) 총회가 동성애자 안수를 금지한 교단 법안을 철회하고 동성혼 축복을 허용하기로 표결한 가운데 세계감리교회(GMC)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UMC 총회 대의원들은 교단 장에서 여러 가지 규칙을 삭제하고 성소수자(LGBT)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로 투표했다.

UMC에 대한 보수적인 대안으로 2022년 출범한 GMC는 최근 성명을 통해 “우

리는 그들의 결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다른 종교 단체의 활동에 대해 논평을 제공하거나 논평하기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GMC는 “세계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 세계 4,501개 이상의 교회와 교인들의 공동체를 섬기는 사명을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헌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지난 2천년 동안 선포된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

인 고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계감리교회는 교단의 강력한 기초를 수호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라고 했다.

GMC는 UMC가 당초 2020년 5월로 예정되었던 총회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 번 연기한 후 2022년 출범했다. GMC의 목표는 UMC 교단 내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지도자들에 반대하여 UMC를 떠나려는 보수주의자들을 위한 새로운 교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동성혼과 비독신 동성애자 성직 안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바꾸려는 수십 년의 노력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UMC 내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성소수자(LGBT) 성직 안수를 금지하는 장정을 시행하거나 따르기를 거부했다.

2019년 특별총회에서는 UMC 탈퇴를 원하는 교회들을 위해 절차를 마련하는 임시 조치를 승인했다. 지난해 말까지 7천5백개가 넘는 교회가 탈퇴했다.

한편, UMC는 지난 1일 40년간 금지해 온 동성애자 목사안수 금지 규정을 삭제했으며 지난 2일 523대 161의 표결로 “동성애의 실천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회생활원칙의 문구도 삭제했다. 이명경 기자

영성공회·가톨릭교회 “수단 내전, 승자 없는 잊혀진 갈등”

영국 성공회와 가톨릭교회가 수단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애도하고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 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번 성명은 수단 정부가 운영하는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부대(RSF)와 수단무장세력(SAF) 간 전투가 시작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에 공개됐다.

유엔은 수단에서 1만5천여명이 사망했으며 2천5백만 명이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세

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1천50만 명이 난민이 되었다.

영국 성공회 외교담당 닉 베인스 주교와 잉글랜드 웨일스 가톨릭 주교회의 아프리카 담당 폴 스와브릭(Paul Swarbrick) 주교는 내전에 대해 “승자 없는 잊혀진 갈등이며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인도주의적 재앙 중 하나”라고 했다.

이들은 “주의가 다른 곳으로 쏠린 가운데 수단 내 분쟁은 여전히 크게 간과되고 있으며, 여성과 어린이들은 말할 수 없는 폭력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다.

이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부활절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지금의 광각의 때가 아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고, 이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캔터베리 대주교의 요청과 일치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단순히 한 위기에서 다른 위기로 우리의 관심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인정하고, 기도하고, 연대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러한 정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단은 우리 모두의 집단적인 관심과 집중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영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즉각적인 휴전을 달성하고 방해받지 않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주교들은 이어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인도주의적 기아 위기를 막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경 기자

美 CDC 보고서 “출생률 계속 감소... 수십년 만에 최저 수준”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출생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 태어난 아기 숫자가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는 최근 2023년 수집된 출생 기록에서 받은 잠정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359만 명으로 2022년보다 2% 감소했다.

CDC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히스패닉계 여성의 출산율은 1%, 백인과 아시아계 여성은 3%, 아메리카 인디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은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평양 섬 주민과 하와이 원주민 여성의 출산율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보고서의 주 저자인 브래디 해밀턴 박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과거보다 더 큰 감소를 보였으며 2023년 감소치는 일반적인 패턴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한 10대 출산율이 1991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2023년에는 15-19세 여성 10대 출산율이 3% 감소했다고 밝혔다.

해밀턴은 “시간이 지나면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비율은 30대 여성으로 옮겨갔지만 이전에는 20대 여성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물론 한 가지 원인은 ‘기다림이라는 선택지다. 전염병이 발생했거나 경기 침체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다. 20대 여성은 상황이 개선되고 더 편안해질 때까지 출산을 연기할 수 있다. 나이든 여성의 경우 기다리는



©Pixabay

유선은 실행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다.

2023년 출생률은 이전 CDC 보고서에서 2020년 기록된 약 360만 5천 명의 출생률보다 낮으며, 2020년 출생률은 197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남침례회 윤리 및 종교자유위원회(ERLC)는 2020년 수차에 대한 2021년 분석에서 출산율 감소를 보여주는 통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ERLC는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사회안전망이 청년들을 일종의 ‘노후보 험’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는 은퇴 연령에 비해 노동 연령의 젊은 인구가 더 많은 것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비율이 역전되면 시스템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2018년 퇴직자 1인당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2.8명이었고 2049년에는 2.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젊은 말레일 세대와 2세대가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에는 그 수가 11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했다.

ERLC는 또한 “청년에 비해 노인에게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에 부담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자발적 안락사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다. 이명경 기자

독일·체코 정부, 6월 유럽의회 선거 앞두고 ‘러 해킹’ 지목

독일과 체코 정부가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의 해킹에 경고 목소리를 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독일 내무부는 3일(현지시간) 지난해 발생한 사민당 지도부 해킹 사건의 배후로 해킹 그룹 ‘팬시 베어’를 지목했다. 해당 해킹 그룹은 러시아 총정찰국(GRU) 군사 정보 부문 조직 중 한 곳으로 알려졌다.

APT28로도 불리는 이 해킹 그룹은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시스템의 보안상 취약한 부분을 활용, 2022년 12월 독일 사민당 당국자들의 이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해당 해킹 사건을 공개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이번 일은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드시 결과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내각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자국이 러시아 특사를 소환했다고 했다.

아울러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건과 관련해 체코도 성명을 내고 독일 정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코 정부는 자국 정보 당국이 비슷한 기간 이 사건과 유사한 팬시 베어의 해킹 사건을 찾아냈다고도 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번 사건은 다음 달 중요한 유럽연합(EU)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유럽 정치권에 분열을 일으키려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했다. EU는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유럽 당국은 지난 3월 러시아 정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선전 네트워크 단속에 나섰고, 프랑스는 지난해 자국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의 활동을 경고하기도 했다. 김남영 기자

한국 언론자유 세계 62위 전년대비 15계단 추락

한국의 언론 자유가 지난 한 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소재 국경없는기자회(RSF)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올해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을 62위로 분류했다. 지난해보다 15계단 떨어진 성적으로, 분류별로는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문제적 상황(Problematic Situation)’에 속했다.

RSF는 매년 180개 나라의 언론자유지수를 평가, ‘좋은 상황(Good Situation), 만족스러운 상황(Satisfactory Situation), 문제적 상황, 어려운 상황(Difficult Situation), 매우 심각한 상황(Very Serious Situation)’ 등 5개 영역으로 분류한다.

RSF는 “한국은 자유주의 민주 국가로서 언론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한다”

라면서도 “종종 전통과 사업적 이해가 언론인의 감시자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했다. 또 “포퓰리스트 정치 경향이 언론 혐오를 조장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언론인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에서 일하지만, 종종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된다”라며 이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주의 법적 지지 등이 필요하다는 게 RSF의 지적이다.

이번 발표에서 세계 언론 자유 1위 국가는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이후 덴마크와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순이다. 북한은 언론 자유 세계 177위로 기록됐으며, 중국이 172위, 러시아가 162위로 모두 ‘매우 심각한 상황’에 속한다. 김남영 기자

인천환경공단
INCHEON ENVIRONMENTAL CORPORATION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환경도 경기도 환시도 활민도 짝

안전 지키GO!
전국 첫 도시침수 예방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자원 다시쓰GO!
공기업 선도 공단
폐기를 자원순환 100% 달성

기후변화 맞서GO!
2030 온실가스 83% 감축,
기후변화 선제 대응

서비스 올리GO!
환경교육 인프라 및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행복이 되는
이웃을 만나다

이웃의 주소를 만듭니다

국민이 바라는 집과 도시를 국민의 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이 바라는 생활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속 만들어 갑니다]

[임대주택 14만호 운영]
청년과 신혼부부, 은퇴자에게 든든한 내일

[아이 키우기 좋은 3기신도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긴급주거지원 4만호]
쪽방,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계층

[희망의 시작 뉴홈]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 등 나에게 맞는 집

민주당, 대 정부 견제 위한 '강경 투쟁' 태세 갖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던 모습. ©뉴스시스

친이재명 핵심인사로 지도부 재정비, 특검법·개혁법안 추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지도부를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강경 성향의 친명(친이재명) 인사들로 재정비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경 대응 태세를 갖추었다.

이재명 대표는 신임 원내대표로 '친명 핵심' 박찬대 의원을 내세우며 초반부터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각종 특검법과 개혁 법안 추진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입법화를 위해 발의를 여러 차례 추진할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선 전부터 이재명 대표와 '강력한 투톱' 체제를 공언해왔고,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는 등 '친명'으로 불렸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 수석으로 박성준·김용민 의원을 임명했는데, 이들 역시 검찰개혁론개혁 등 강경 투쟁 라인으로

분류된다. 특히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까지 언급한 바 있다.

원내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쌍특검법을 비롯해 방송법, 간호법, 노동조합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다시 발의될 전망이다.

지난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달 말 재의결을 추진하고, 22대 국회에서도 바로 재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각종 개혁

입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승리 후 단행한 당직 인선에서도 친명 강경파를 주요 자리에 앉혔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협상 결렬 시에는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동대처럼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국 기자

송석준, 박찬대에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진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송석준 의원은 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두고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진다"며 강경 일변도의 태도에 견제구를 던졌다.

송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한 게 꼭 잘하는 건 아니고 이기는 것도 아니다"라며 "자연의 이치를 잘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나"라며 민주당에 유연한 자세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타협 과정에서 본인 주장이 민심과 부합하는지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는 "수사 외압이 아닌 조사 결과 시정"이라며 "민주당이 '수사 외압'이라 부르는 건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결과도 안 나온 사안에 특검을 밀어붙이는 건 정쟁을 위한 정쟁"이라고 혹평했다.

아울러 재의결 과정에서 채 상병 특검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민주당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 의원은 "사안 본질을 제대로 파악 못한 채 동조하는 듯하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당대회를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정에 선을 그을 필요 없다"며 "무엇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 원내대표 선출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접수한 뒤 소감을 말하던 모습. ©뉴스시스

든 해야 한다"고 당내 쇄신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총선 참패 책임을 많이 느낀다"며 원내대표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박용국 기자

국힘, 채 상병 특검법 재투표 앞두고 '이탈표' 단속 총력전

국민의힘이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재투표를 앞두고 당내 이탈표를 비롯해 불참 의원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마지막 공천 과정에서 낙선·낙선한 55명의 의원들에 대한 이탈표와 불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재의결 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당내 단속에 실패할 경우 특검법 가결

로 사실상 조지 와해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70%가 특검법에 찬성할 바 있다.

이미 김용 의원은 "당 의원들도 부끄러워한다. 우리 당이 살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며 재투표 결과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나라를 위해 생명 바친 분에게 최대 예우를 헤드리는 게 도리"라며 특검법 자체에는 찬성 의사를 밝혔

다. 불출마나선한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도 변수다. 특검법 재의결에는 재적 과

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의석만으로 과반 출석이 가능해 국민의힘은 최대한 출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다만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재가결이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중진 의원은 "특검 필요성에 동의하나 여야 합의 없는 법안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던 6개 법안을 모두 폐기한 바 있다.

한편 오는 9일 선출될 차기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당내 표 단속에 나서야 하는 중책을 지게 됐다. 박용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다.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질문도 가리지 않고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경제·민생, 국방·외교·안보, 정치, 지역 균형발전 등 분야별로 질의응답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 함께 모두발언 메시지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한다.

모두발언 이후에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생 분야에서는 물가, 고용, 주거 등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제 현안에 관한 질의응답이 예상된다.

안보·외교 분야에서는 북핵 문제, 한미동맹, 주요 외교 현안 등 대통령의 입장이 제시될 수 있다. 정치 분야에서는 여야 대립, 권력기관 개혁 등 정치 이슈에 대한 답변도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됐던 순직 해병 채상병 진상규명 특검 임명 법안, 김건희 여사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대 정원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박용국 기자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지방사립대병원 도산 위기 심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지방사립대병원들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3개월 가까이 이어진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경영이 악화일로로 걷고 있는 것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방사립대병원들은 만성적 적자에 시달려왔지만, 이번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인건비는 고정적이던 전공의 등 인력 부족으로 수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적자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울산대병원 등도 전시 상황에 준해 경영안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제는 버텨왔던 병원들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일부 병원은 이미

도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립대병원 교수는 "급여 1순위 지급으로도 빚이 쌓이고 있다"며 "외부 자금 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토로했다.

병원들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이들 영세업체의 연쇄 도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수개월간 대금을 받지 못하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병원 신규 채용 중단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직 실업률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사립대병원장은 "보건 의료계열 졸업생들의 취업 문이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나래 기자

교대·초등교육과, 학교폭력 가해 이력 학생 지원 금지·제한

교사를 양성하는 전국의 교육대학교(교대)와 대학 초등교육과가 학교 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지원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로 했다.

6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관련 내용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조치 사항 수준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거나 감점하기로 했다.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는 경중에 따라 1호(서면사과)에서 9호(퇴학)까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경인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는 1-9호 관계없이 수시정시 모든 전형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춘천교대는 1호 조치자에 40점 감점,

2호 이상은 부적격 처리한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도 1호는 감점, 2호 이상은 부적격 처리한다. 공주교대의 경우 수시에서 1-5호는 최대 100점 감점, 6-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정시도 이와 유사하다. 광주교대는 학생부교과전형형 1-9호 전원 부적격, 학생부종합은 1-3호 정성평가 반영하고 4-9호 부적격, 수능위주는 1-3호 최대 100점 감점, 4-9호 부적격 처리한다. 대구교대는 1호 150점, 2호 200점 감점하고 3-9호 부적격 처리한다. 전주교대는 1-3호 단계적 감점, 4호 이상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

이 같은 기준은 현 고2가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며, 검정고시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나래 기자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 골든부츠(득점왕) 수상 **손흥민**

안티푸라민 콜에어파스 에어로솔 의약품

대한민국이 당신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유한양행

“쉬지 않고 복음통일, 대한민국 위해 기도해야”

미주통일광장기도회, 워싱턴 D.C서 162차 통일광장기도회 개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는 미주 통일광장기도회 (대표 이종인 선교사)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현지 시각) 워싱턴 DC 링컨 기념센터와 한국전 참전용사 공원 사이에서 162차 통일광장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기도문을 함축하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어 김현택 목사(육군 기독교인 연합회 지도목사·사진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다. 제가 미국에 올 때마다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또 기도에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이 된다. 저는 육군 기독교인 연합회를 섬기고 있으며 거기에는 군을 이끌어가는 주요 장성들도 있고 많은 주요 지도자들이 있다”며 “이 자리에 와서 드는 생각은 우리 군인들이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저는 미국의 심장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을 보면서 마치 아말렉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는 모세가 생각한다. 바로 여기가 저는 그 산꼭대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요즘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인다. 현실을 보면 낙심이 된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소망이 생긴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했다. 그렇지만 이 시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은 의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목사는 “청교도의 창시자인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살기도 하고 공동체가 죽고 사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된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 모세, 에스더, 엘리야 등이 그런 역사를 이룬 인물들이다’며 “세상인 만민이 없으며 사단의 세력이 만만치 않다. 살아 가면서 도저히 대처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길 바란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신앙의 행



미주통일광장기도회가 워싱턴 D.C 링컨 기념센터와 한국전 참전 용사 공원 사이에서 162차 통일광장기도회를 개최했다. ©미주통일광장기도회

위가 아니다. 저는 기도가 정말 생사가 걸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진다. 전쟁에서 진다는 의미는 수많은 군인,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지 않을 때 내 가족이 죽어 나가고 내 공동체가 죽어 나가고 내 나라가 죽어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영적으로 죽어간다. 그리고 내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텍사스주에서 2천 명을 대상으로 기도 생활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80.5%가 하루에 5분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배 시간과 식사기도 외에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응답자가 85.7%로 나타났다”고 했다.

김 목사는 “한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다. 예배소서 6장을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마틴 루터는 하루에 두 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날은 마귀에게 패배하는 날이라고 했다. 저는 이 말씀을 절실히 공감한다. 그리고 제 목회 사역 중에서 가

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 사역이다. 매일 사탄의 방해 계획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는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사탄의 전략 회의라는 책을 보면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전략을 쓰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사탄은 무력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고민을 하며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인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을 쓴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럴수록 순교자, 신앙의 영웅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가장 적합하게 그리스도인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을 분주하게 만들고 기도를 후순위로 두게 만드는 것”이라며 “저는 군인으로 40년을 복무하면서 어떻게 하면 적군과 싸워 이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연구해왔다. 저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첨단 무기, 핵무기가 아니라 영적 무기인 기도라고 생각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사 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 목사는 “저는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영적인 와이어가 공유기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사탄은 그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쓴다. 저는 하루에 두 시간 이상 기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 그런데 제가 충실히 기도한 날은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잠 시라도 기도를 놓치면 문제가 커 보이고 사탄이 강해 보인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께서 하셨으리라 생각한다. 기도 외에 다른 쉬운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깊이 붙들길 바란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죽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깊이 붙들시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기도가 절실한 이때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목숨을 걸고 매일 산골짜기에 올라가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내 가족, 공동체의 생명이 내 기도에 달렸다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팔을 거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예 불을 내려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어 태아 생명 보호법 제정, 복음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다. 최승연 기자

림형석 목사, 예장 통합 제1회 다음세대 신앙전수 대상 수상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지난 3일 오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제108회 제1회 다음세대 신앙전수 모범가정 시상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예배,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예배는 조병호 목사(총회 서기)의 인도로 드려졌다. 차주욱 장로(증경부총회장)의 대표기도, 윤택진 장로(부총회장)의 성경봉독의 이어 김의식 목사가 ‘복 있는 자(사편 127편 3-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 왕은 그 무엇보다도 가족과 자녀 즉,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기뻐한 이유는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누렸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로 복을 쌓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후손이 이 땅의 기업을 되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오늘의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이며 이는 세계 최악의 수치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출산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부모와 앞세대 결혼 세대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모습 이 그 친구들이나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고소득, 여가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비혼주의가 늘어나게 되었고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양육 환경이 열악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자식들은 여호와와의 기업이라는 것이다. 4월부터 5절을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며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하고 증거하고 있다. 이는 자식들은 부모가 늙어도 부모를 보호해주는 장사이며 그의 수종이 화살 같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식이 부모의 노년을 보호해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이라며 “신앙이 자손 대대로 이어질 때 한국교회가 살 수 있다. 한국교회의 문제를 교회 교육의 문제로 보지만 실제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제1회 다음세대 신앙전수 모범가정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승연 기자

가정 신앙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모 세대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잘 이어가면 한국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 그런데 부모님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인데도 자식들이 신앙을 버린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세대에 신앙 전수를 잘 해야 할 줄로 생각하며 그런 가정을 잘 세워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림형석 목사(증경총회장·사진)가 축도했다. 림 목사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함께할 때 그 신앙을 잘 전수하면 그 자손들은 100% 성공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를 놓지 말고 신앙을 잘 유지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시상식은 조병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안옥섭 장로(심사부위원장)가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림형석 목사가 대상, 박기상 장로, 이정임 권사가 우수상, 김경근 목사, 이태우 장로, 이수현 권사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어 이성희 목사(증경총회장)가 축사를 전했다. 이 목사는 “우리가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은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지혜의 왕이었고 예루살렘에 제1번 지었던 성전에서 지냈는데 그가 누린 모든 것은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다윗 때문에 그는 영광을 받은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그의 자손은 솔로몬에게 신앙, 부귀와 영화를 전해준 것”이라며 “솔로몬과 다윗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도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여 이어가는 장면들이 있다. 이 자리를 빌어 신앙을 잘 물려주신 것에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후대가 우리 신앙을 잘 계승하시길 축복한다”고 했다.

이어 대상 수상자인 림형석 목사(증경총회장)가 수상 소감을 전했다. 림 목사는 “사실 오늘 이 상을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이 목회하실 때 목회라고 하는 것은 심자기를 지는 것이었고 죽음을 각오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나 북한 공산 치하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시면서 목회를 하셨다”며 “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신앙을 지키면서 매일 새벽기도를 드리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으며 그 신앙이 저에게 이어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저희 집안의 신앙의 전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신앙을 잘 지키시면서 오셨기에 지금 저와 그리고 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잘 물려받고 혜택을 누리게 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저는 이 상을 마땅히 저의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저에게 신앙의 보물을 보여주시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동아제약

동아보검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갱년기 장애

동아보검 경옥고는 동의보검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완성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일반의약품 60포(23g x 10포 x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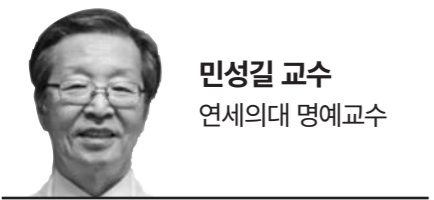
동아보검 경옥고

자양강장 ·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갱년기장애 · 권태

일반의약품 광고심의필 : 2023-1688-0036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처방전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상의하십시오

탈동성애 사역의 효과: 변화는 가능한가?



민성길 교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크리스천이 본 섹슈얼리티

변화된 동성애자가 궁극적으로 이성애 관계로 회복하는 것인데, 신앙으로도 그게 가능한가?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환은 쉽지 않다. 진실한 믿음 이외에도, 강한 동기, 노력 그리고 끈질김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쨌든 많은 연구들과 신앙으로 탈동성애 한 사람들의 수많은 증언들에 의하면, 예수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사랑을 믿음으로써 전환은 가능하다.

1992년 Mesmer는 탈동성애 사역에 참여한 100여명의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서 떠났고, 그들 중 41%가 완전한 전환을 하였다고 하였다. Schaeffer 등(1999)은 연구에 참여한 동성애자 146명 중, 남자 61%, 여자 71%에서 지난 일년간 금단(독신, 순결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29%에서 이성애로 완전히 전환하였고, 65%는 전환 중에 있다고 하였다.

이 분야의 중요 연구자인 Christian

Wheaton College의 교수인 Stanton Jones 및 Mark Yarhouse(2000)는 1954-1994년 사이 탈동성애 사역에 대한 30개 논문을 review하고 메타-분석을 시행한 결과,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지만, 대상의 33%(25-50%)에서 다양한 정도 이상으로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그들은 또한 2007년 탈동성애 사역 집회에 참석한 동성애들 73명을 조사한 결과 신앙으로 15%가 성공적으로 이성애자로 전환하였고, 23%가 동성결립이 간헐적이 되었다고 하였고, 29%가 동성결립이 상당히 감소하였다고 하였고, 27%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하였고, 12%에서 전환치료를 포기하였다고 하였고, 8%가 동성애자로 남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성애 전환을 위한 시도는 당사자에게 해로움을 끼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연구자들은 비판에 대응하여 같은 자료를 다시 정교하게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2009년에 발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대상이나 "전적인 동성애자들"(truly gay) 모두, 키제이 척도상 덜 동성애 쪽으로, 또한 더 이성애 쪽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다. 동성애 감소 효과는 이성애 증가 효과보다 컸는데, 이 두 효과는 연결되지만 같지는 않다고 하였다. 범주상 변화도 있었는데, 동

성애가 감소한 사람은 23%, 동성결립 감소와 금욕한 사람은 30%, 등 합계 63%의 효과를 보았다고 하였다. 16%의 동성애자들은 아직 원하는 효과가 없었음에도 6-7년간 사역에 참여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었다. 원하는 효과에 반대되는 결과도 20%였다. 또한 중요한 소견으로 전체나 전적인 게이 집단에서 모두 정신건강 척도(SCL-90-R)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즉 정신건강면에서 아무런 해로움을 끼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다수 비평가들은 이 정도 결과는 동성애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증거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Dr. Jones는 반론하기를, 동성애 전환치료의 성공률이 낮다고 하여도, 약물 중독, 성도착장애(소아애증 등), 인격장애 등 치료가 매우 어려운 다른 정신장애에 비하면 그리 나쁜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낮은 성공률은 치료가 전혀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이 정도 효과는 정신장애에 대한 정신치료효과나 약물치료효과에 비견되는 (부작용도 있는) 효과였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방법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저자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Lisa Diamond(2007; 2008)의 연구와 비슷하다고 하였는데, 그 연구는 89명의 바이성애 여성들의 자연적인 성지남의 변화에 대해

표준화된 자기보고형 설문으로 전향적으로 추적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저자들은, 미국심리학회가 전환시도를 동성애자들에게 편견을 증대시키고 상해를 끼치는 비효과적 개입이라 비난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미국심리학회의 자체 윤리규정인 Leona Tyler Principle를 위반하는 것이라 하였다. 즉 학술단체의 공공 옹호 활동(advocacy)은 전문성과 가치에 대한 연구에 의해 보완된, 높은 수준의 경험적 연구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들은 탈동성애를 원하는 동성애자의 "자기결정"은, 동성애를 인정(affirm)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소비자에게 알려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모든 동성애자가 모두 변화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전환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전적인 동성애에서 완벽한 이성애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환을 보인 사람들도 가끔 동성애 끌림을 느끼기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탈동성애 사역으로 정체성은 바뀔 수 있고 동성간 성행위는 중단

할 수 있고, 금욕과 독신은 가능하여도, 동성 결립은 없애기 어렵다는 주장은 꾸준히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3년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의 회장 Chambers 부부가 동성 결립에서 결국 실패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엑소더스를 탈퇴하였다. 탈동성애 활동은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해산되었던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은 남은 사역자들에게 다른 명칭으로 재건되었다. 또 한 국제적인 exodus global alliance나 그의 수많은 탈동성애 사역 단체들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30여개의 단체가 PATH라는 국제적 연합도 구성하고 있다.

이후 탈동성애 사역에 대해 비판이 거세졌고 실제 효과가 적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2015년 한 연구는 물론 신앙으로 탈동성애에서 실패한 경우들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 이유는 아마도 사역자들과의 공동 노력없이 혼자서 노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자들은 그러나 전문적 치료가 동반된다면 탈동성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하였다.

동성애자들과 그 옹호론자들은 탈동성애 사역을 유사과학(pseudo-science)이라 비난하고,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 논문이라 비판한다. 그 일차적 근거는 학술적 증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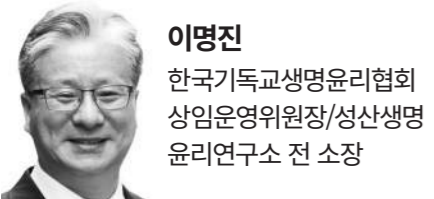
국정신의학회화 "동성애는 정상이다"라고 결정하였다는 사실에 두고 있다. 그러나 그 결정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폭력적 시위 때문이었다. 또 다른 근거는 한동안 유행한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는 이론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 역시 반대되는 연구에 의해 부인되고 있다. 이제 그들의 근거는 실상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또한 동성애 옹호론자들 탈동성애 사역에 참여하는 동성애자들의 동기에 대해 왜곡된 말을 하고 있다. 즉 그들이 단순히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 보수적 교회나 가족들로부터 피난하기 위해, 게이 공동체로부터 축출되었기 때문에, 등등으로 왜곡하고 있다.

어렵지만 탈동성애 하는 것은 가능하다. 탈동성애 사역은 동성애자를 배척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성애를 정상인 것으로 포용하지도 않는다. 단지 사역자들은 동성애로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동성애에서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노력을 돕고자 한다.

우리 크리스천들과 교회는 탈동성애자들의 사역을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라는 말씀을 믿는다.

인간에게 인간을 죽이는 것은 권리가 될 수 없다



이명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성산생명
윤리연구소 전 소장

◆인간의 권리 중에 인간을 죽일 권리는 없다

인간이 인간을 죽일 권리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인간을 죽일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영국은 1968년에 임신 24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천만 명의 생명이 낙태로 죽었고,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통해 임신 3분기 이전까지 낙태를 허용한 후 50년간 6천3백만 명의 생명이 죽어갔다.

"살인하지 말지니라"(출 20:13, 신 5:17)

1차 대전으로 인해 1,900만 명 이상 사망했고 2차대전으로 6,600만 명이 사망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2023년 10

월까지 700만 명이 사망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비극이었던 세계대전과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보다 더 많은 생명이 낙태로 죽어가고 있다.

2024년 3월 4일 프랑스에서는 임신 14주 이내의 그 어떤 낙태도 허용하는 '낙태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넣었다는 기가 막히는 소식을 들었다. 14주 이내의 태아를 인간의 편익과 쾌락을 위해 죽이는 것이 권리로 인정받는 것이다. 생명을 죽일 권리를 실정법이 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법을 떠나 인간이 생명을 죽일 기준을 정하는 교단이 극에 달한 느낌이다. 낙태뿐 아니라 성적 타락으로 혼외 출산율이 65%를 넘어선 프랑스의 미래는 암울해 보인다.

◆신학적 입장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1973년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 이후 지금까지 낙태를 허용해 왔다. 최근에는 50주 주 중에서 11개 주에서 수백 개의 낙태 반대 법안이 올라오고 있다. 주로 기독교

의 영향력이 강한 주에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남침례교단의 신학적 기초가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결과로 판단된다. 신학에서 선포되는 신학이 복음에 입각한 보수주의 입장을 취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따르는 자유주의 신학을 취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기준이 많이 달라진다.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자유주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청교도적 개혁주의 교리가 탑재된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복음주의적 입장을 받아들여진다. 신학교와 교회에서 어떤 교리를 택하느냐에 따라 국가정책과 사회적 기준설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법과 사회제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치가들과 법관들 역시 목사들의 설교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1973년 미국에서 임신 2분기까지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 역시 교회의 영향을 받은 판결이었다. 청교도적 신앙을 바탕으로 건국한 미국

에서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인지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흥미롭다. 남침례교가 미국 기독교 교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지금도 남침례교의 입장은 미국의 크고 작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 말까지 남침례교 신학교와 교단총회에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신학자와 교계지도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다. 그들은 낙태에 대하여 상당히 유희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들의 설교를 들은 정치인들과 법관들 역시 낙태 허용에 대해 유희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오자 남침례교 총회장이 바로 낙태 허용 판결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면 당시 교단의 분위기를 잘 읽을 수 있다.

1979년 미국 남침례교단은 복음주의 입장에 확고한 아드리안 로저(Adrian Rogers) 목사가 총회장이 되면서 보수주의 신학 그룹이 힘을 받게 된다. 이 시기부터 성경적 낙태 반대 운동인 'Pro-life

운동이 남침례교단의 의견으로 다시 정착하기 시작한다. 남침례교단은 신학교와 교단 지도자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그룹을 내보내고 복음주의 그룹으로 대체해 간다. 현재 미국에서 많은 낙태 반대 법안이 나오는 현상은 이러한 흐름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학적 입장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신학이 바로 서야 신앙인이 바로 선다.

◆대한민국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가장 먼저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귀한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 좋은 소식,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 10:13,14)

최근 대한민국 여러 교단에서 프로라이프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낙태방지 활동에 시작하고 있다. 2020년부터 한국 로잔 운동에서도 생명주간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생명운동 확산에 나서고 있다. 합동신학교에서는 기독교계에서 처음으로 생명윤리 석사과정 개설되었다. 신학자들이 중심이 된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도 설립되어 기독교 윤리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 각 지역에서 프로라이프 교육 프로그램(Stand Up For Life, 러브라이프 생명학교, 프로라이프 생명학교)들이 만들어져 진행되고 있으며 거리 계몽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에 반생명의 문화를 생명 문화로 바꾸는 생명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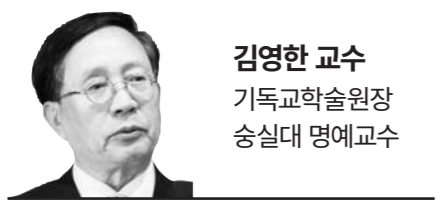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발급금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지형권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
• 기업구조조정펀드 • 경호 산업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유신진화론 비판: 정통개혁신학적 평가(1)



김명환 교수
기독교학술원장
송실대 명예교수

◆머리말
오늘날 창조론자들 가운데 성경을 과학적 데이터에 맞추고자 하는 타협주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유신론적 진화론 내지 점진적 창조론이 그 대표적이다. 그런데 정통개혁신학에 의하면 성경이 증언하는 창조론은 진화론과 조화될 수 없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 필자가 봉직하는 기독교학술원은 창조 사실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지지하며, 학문적으로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하여 존중하는 포용적 입장을 갖되, 성경과 과학 사이 갈등이 야기할 때 성경의 가르침을 우선하는 계시의론 사유를 지지한다.

필자는 “창조론의 과학성”과 “유신진화론의 성경적 비적합성”에 관하여 견해를 표명하고자 한다. 성경은 일차적으로 영생에 관한 책이긴 하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창조론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과학적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창조론은 과학적 지식을 결코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창조론은 창조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시도하지 않는다. 창조 사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행위로서 실험실에서 되풀이하여 입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론은 과학적 자료를 고려한 창조에 대해 성찰하는 입장이 창조 사상으로 인기몰이하는 사이비과학이 아니다.

진정한 과학은 사실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니 만큼 창조론 역시 이러한 과학

적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대화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창조론은 과학성을 결단코 무시하지 않는다. 단지 창조론은 과학적 지식과의 대화에 있어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말씀 정합성에서 탈피해서는 안된다. 과학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진보하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과학과 성경이 갈등을 일으킬 때 신학은 성경의 증언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창조론은 교회와 기독교 신앙에 기여할 수 있다.

1. 창조과학과 창조론
1. 창조과학의 학문성: 하나님 창조에 대한 과학적 설명
하나님은 창조는 어느누구도 보지 않은 그리고 인간의 미역한 지성으로 다 밝히지 못하는 신주권적인 초자연적 사건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사의한 술법인 마법(魔法)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고 로고스라는 질서 정연한 정합성으로 우주를 설계하시고 그의 권능으로 무로부터 지으셨다. 그러므로 기독교 과학자요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한 불가사의한 사실을 과학적으로도 밝히고자 한다. 신명기는 다음같이 증언하고 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신 29:29)

창조론은 입증될 수 없는 초자연적 창조 사실을 과학 언어로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학성을 지닌다. 창조과학은 “하나님 창조의 과학성”에 관하여 변증하고자 하지만 창조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시도하지 않는다. 창조 사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행위로서 실험실에서 되풀이하여 입증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창조론은 과학적 지식과의 대화에 있어

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말씀 정합성에서 탈피해서는 안된다. 창조론은 이런 의미에서 창조 신학과 함께 신앙이라는 전체를 갖는다.

창조과학은 창조 신앙에 근거하면서 다양한 이론이 공존하는 자연과학의 영역에서 창조사실을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변증성격의 학술 활동이다. 생명과학자들에 의하면 세포의 자연사를 말하면서 하나의 세포가 자라나 한 인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모든 세포가 다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죽는 세포가 있어야 우리의 몸의 생명이 유지된다. 세포가 죽지 않으면 암에 걸리게 된다. “적혈구의 경우 몸 속에서 120일 살고 죽게되어 있다.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메꾸게 된다. 우리 몸의 피는 죽기 전까지 3-4개월에 걸쳐 늘 새로운 피로 바뀐다.” 이처럼 우리 몸 안에는 죽어가는 세포와 새롭게 형성되는 세포가 공존한다고 한다. 이스라엘 연구소가 한 개의 세포가 임신되어 출산하기까지 사람을 구성하는 세포 수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인간을 구성하는 세포는 약 30-40조 개 정도이다. 산술적으로 수정되어 약 40조 개의 세포가 되는 임신 기간에 한 개의 세포가 인간 전체를 구성하는 40조 개 정도의 세포를 일으켜 내려면 1초에 10만 개 내지 15만 개의 세포가 생겨나야만 한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다. 신앙을 가진 자는 이러한 인간 생체의 신비로운 사실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시편 저자는 이 사실을 다음같이 칭송한다: “13.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시 139:13-14)

창조과학은 “현대문명을 이룬 과학법칙과 관찰되는 자연의 질서를 온전히 인정한다. 다만 생명이 유연히 발생, 진화되었고, 우주와 지구의 복잡하고도 정교한 질서가 지질로 만들어졌다는 진화론의 핵심 가설이 과학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진화론을 비판한다.”

2. 창조론은 하나의 신앙적 지성의 노력이지 사이비 과학의 주장이 아니다
창조론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과학적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지혜, 즉 로고스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잠언 저자는 창조주께서 로고스(지혜)로 만물을 지으셨음을 증언하고 있다:
“22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7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연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28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29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31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잠 8:22-31).

여기서 “나”란 하나님의 로고스요 인격으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계신 로고스(λογος, 말씀 the Word)이며, 만물이 로고스에 의하여 지어졌다고 증언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3). 하나님은 만물을 마법에 의하여 지으시지 않고 지혜인 로고스에 의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과학이 가능한 것이다. 창조과학은

자연이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로고스를 과학자의 눈으로 탐구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는 그 안에 법칙성과 규칙성, 조율성과 조화를 가지고 있어서 과학자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이러한 창조의 오묘한 이치를 드러낸다. 창조론은 과학적 지식을 결코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창조론은 사이비과학이 아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영국의 과학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 1992-1994)는 과학과 사이비과학을 구분하여 과학은 본질적으로 반증(反證) 가능성(falsifiability)을 가진 사이비과학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포퍼는 거짓말이 드러나도 선동자들은 임시 방편(ad hoc)의 보조 가설을 도입하여 논박을 피한다고 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반증될 수 있으나 과학인 반면, 점성술은 불리한 증거들이 나오면 반증을 피해버리니 사이비과학이다. 포퍼가 최초의 저서 《탐구의 논리》(1934)에서 밝히는 바같이 과학(지식)은 합리적인 가설의 제기와 그 반증(비판)을 통하여 시행착오(試行錯誤)의 과정으로 성장한다. 창조론 탐구도 ‘실수로부터 배움’으로써 진리에 접근한다는 ‘비판적 합리주의’의 인식론을 수용해야 한다.

진정한 과학은 사실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니 만큼 창조론 역시 이러한 과학적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대화하여야 한다. 현대 미국 창조론자 가운데 석사 학위 없는 클리프드 버딕(Clifford L. Burdick) 등이 확인되지 않은 공룡 발자국 옆의 사람 발자국 화석 공식발표(1945년) 한 것 등은 창조과학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사건이었다. 창조과학은 성경에 기반하되 과학성을 결단코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창조과학은 현대문명을 이룬 과학 법칙과 그 방법론을 존중하나, 진화론은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사실인

양 선전되고 있지만, 실상 그 핵심 논거는 엄밀한 과학적 근거가 크게 부족한 편향된 이론에 불과하다. 포퍼는 진화론에 대하여 반증(경험에 의해 반박)될 수 없으니 과학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형이상학적 연구프로그램”(metaphysical research programme)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창조과학이 사이비 혹은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거나 왜곡한다는 주장은 극소수의 창조론자들의 과학성 없는 화석 주장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창조과학은 진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창조 사실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개혁신학의 창조론은 프라이스의 『홍수지질학』과 모리스의 『창세기의 홍수』의 근본주의 엄격한 창조론을 넘어서나
주류 미국보수교회 미국 장로교회(PCA)와 정통장로교회(OPC)의 폭넓은 창조론 입장은 안식교인 맥크리디 프라이스(George McCready Price, 1870-1963)와 남침례교인 헨리 모리스(Henry Morris, 1918-2006)의 근본주의적 엄격한 창조론을 넘어서나. 창조론은 제7일안식일 제립교의이로서 을 넘어서나. 모리스의 창조론은 문자적인 6일 창조와 전지구적 홍수를 주장하고 화석, 빙하, 그랜드캐니언이 대홍수의 전지구적 대격변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하며, 아담 창조 이전에는 생명이 없는 지구, 주전 4천년-8천년 형성된 젊은 지구론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서 주류 장로교 창조론은 1일 24시간 관점(24-hour view)에 머물지 않고, 매우 오래전 우주가 창조되었고, 먼저 물질 창조, 다음 생명 창조, 화석 형성, 인간 창조로 이어지는 날-시대 관점(the day-era view)을 받아들이는 오랜 지구론도 수용하고 노아 홍수 이전에 화석이 형성되었고, 노아 홍수의 지역성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있다. <계속>

“끝”이라고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다!



서병채 목사
케냐 뮐빈대학교 총장

끝은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할 필요가 있다. 졸업식 때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을 종종 들곤 한다.

사실 졸업식이라는 말은 ‘Graduation Ceremony’라고 아시아쪽에서는 많이 썼는데 서양에서는 ‘Commencement’라고 쓰기에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시작과 졸업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었다. 말 그대로 졸업과 동시에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래서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우리 사역에서도, 또 나의 개인적인 진

행에 있어서도 끝과 시작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끝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된다. 그것은 의도적이기도 하지만 이전의 프로젝트에서 얻어진 노하우와 에너지, 모멘텀, 그리고 새롭고 업그레이드된 프로젝트가 자동적으로 또 시작이 됨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진행되다보니 벌써 24년이 지나가고 있다. 장거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단명해서는 안될 것이다. 시작, 끝, 또 시작이 반복되

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이것이 중요한 진행방법이고 확실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인 것 같다. 사역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나면, 우리는 더 높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또 다른 현실적으로 필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사역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프로젝트, 업그레이드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창의적인 리더! 그게 무슨 뜻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특정한 프로젝트를 할 때, 나 자신이 그 프로젝트에 집

중하는 한, 나는 내 자신이 창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나는 원래 창의적인 사람이지만, 현재 주어진 프로젝트에 최대한으로 집중을 하다보니, 내 마음에서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나왔다. 그래서 나는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계속해서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내가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계속적인 시작-끝-시작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창의적으로 된 것 같다.

나는 ‘완성하기’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 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무의식적

으로, 또 주어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창의적이 될 수밖에 없다. 어제와 오늘은 다르기에 새로운 날에 또 적응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사실,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우리가 새로 발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재발견하여 사용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새로운 상황에 계속해서 적응하고, 또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자신과 사역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그런 것을 본 사람들은 우리를 창의적이라고 표현하게 된다!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30정

발열

인후통

근육통

몸살

광고심의필: 2022-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조피타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개결림), 타박상, 골절상, 염좌상(염좌상),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구원론: 십자가의 능력(1)

최덕함 박사
Th.D. 바로선개혁교회
담임목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롬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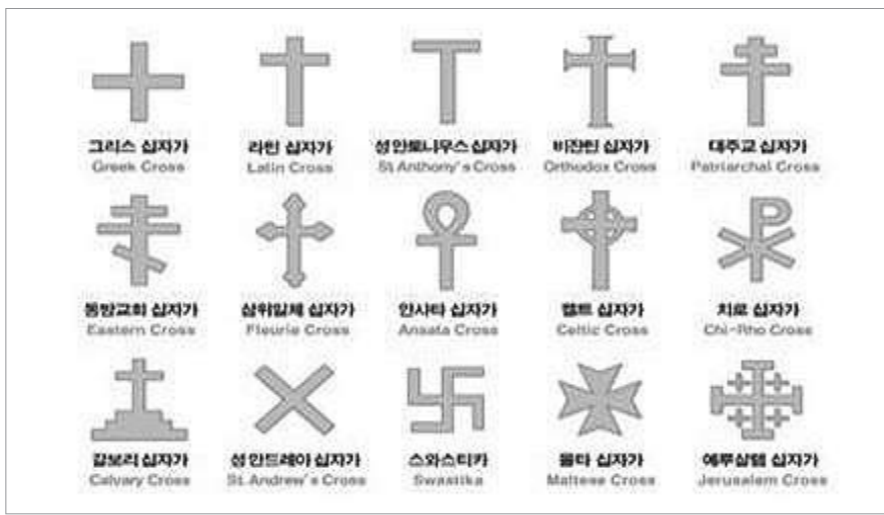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20)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엡 2:16)

1. 사도들의 복음전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전파의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마 28:19-20과 행 1:8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관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이 말씀에 따라 사도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넓은 세상 어디

를 가든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훗날 사도들이 지고 간 십자가는 가톨릭 교회의 여러 상징물들이 되어 여러 종류의 십자가로 변형되었습니다. 이후 십자가는 불행히도 여러 종파의 상징물로 전락했습니다. (그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물이나 장식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침탈로 세워진 십자가는 그나마 봐줄만 합니다. 어두운 밤에 십자가의 불빛을 비추므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십자가가 요즘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사용되니까? 젊은 여자들의 목걸이용으로 십자가가 전락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꼭대기에서 불을 밝히는 상징물로 사용됩니다. ‘바야 돌로레사(십자가의 길)’를 강조하며 실제로 십자가 모형을 만들어 그것을 지고 산길이나 언덕길을 올라가는 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실제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십자가 악령을 쫓는다고 얼굴 앞에 십자가 모양의 성호를 그려 십자가의 마술적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행세합니다. ‘검은 사제들’ 같은 영화

들이 버젓이 방영되면서 십자가를 하나의 주술적 도구나 무기로 오인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십자가 피포먼스가 발흥하고 십자가의 참된 정신이 사라지면서 십자가의 참된 능력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십자가’가 화려한 장식물이 되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진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입니다. 이 등대의 불빛이 온 세상에 비추일 때 세상은 구원의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곳이라면 이미 그곳은 죽음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전기로 만든 불빛은 화려한데 참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겉보기만 살아 있는 교회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교회를 살아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교회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계속>

되돌아 본 “허드슨 강의 기적”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회 원로목사

벌써 15년 전의 일입니다. 2009년 1월 15일 오후 3시 25분 뉴욕시 라과디아 공항에서 출발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으로 향하던 에어웨이즈 1549편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 거위 떼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양쪽 엔진이 모두 말가진 상황에서 기장 설렌버거는 라과디아 공항으로의 회항, 인근 공항으로의 비상 착륙을 모색하다가, 결국 허드슨강의 물 위에 비상 착륙하였습니다.

녹음된 공항 관제탑과 기장의 대화는 긴박한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50명의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중대한 상황판단을 하여야 하는 기장, 부기장, 관제탑 요원과의 대화는 승무원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의 운명을 가로지르는 막중한 결단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엔진의 출력을 잃은 비행기가 조지 워싱턴 대교를 지나 허드슨강을 따라 활공하다가, 맨하탄의 고층빌딩과 인근의 주택가를 피해 착륙한 것은 최고의 선택이라 평가되었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155명 승객과 승무원은 전원 구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설렌버거는 “허드슨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영웅”으로 불립니다. 아울러 이 성공적인 활공 착륙은 각종 비상조치의 교과서적 사건이 되었으며, 리더십의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4월 19일에서 25일에 이르기까지 뉴욕에서 집회에 초청받아 말씀을 전했습니다. 24일 뉴욕에서 사역하시던 한 목사님의 인도로 “로스 닥 피크닉 공원”(Ross Dock Picnic Area)에 하이킹을 나갔습니다. 15년 전의 비행기가 수상 착륙하기 위하여 지나간 궤적을 바라보면, 허드슨 강변을 걸었습니다. 웅장한 조지 워싱턴 대교와 멀리 맨하탄의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화롭게 보이는 봄날 오후 허드슨강의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가는 비행기를 마음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세월호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각종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사고들이 각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고 상황 속에서 리더의 순간적인 결단이 생사를 가능케 하는 영향을 공동체에 미치게 되는지를 목상하게 됩니다. 함께 하이킹하는 동안 교단의 감동을 지녔던 목사님께서 지난 10년 동안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교회가 축소되는 시대의 책임자로서의 사역이 힘들었던

면을 언급하시면서, 적절한 상황평가와 사역의 집행 및 선한 영향력의 유지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회고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적 영향력은 마치 새 떼의 충돌, 곧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를 겪은 항공기의 추락에 가까울 정도로 급하게 하락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 혁명과 교단의 분열, 팬데믹과 세속화의 적대적인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환란의 시대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시대 속에서, 어떠한 긴급한 판단 그리고 어떠한 리더십이 요청되는지를 생각합니다.

교단 감독님과 대화를 나눈 후 정리해본 저의 소견은 첫째 교회의 “자기 정체성” 확보와 교회의 시대적 관련성 혹은 “상황적 적실성”의 유지라는 두 가지 면입니다. 복음의 확산과 공동체적 사랑의 실천이라는 자기 정체성의 유지 없이, 교회는 함없는 추락을 역전시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강한 복음적 교회는 또한 시대적 상황에 적절한 메시지의 선포 없이, 시대의 영혼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탑승객을 안착시키는 설렌버거 기장의 결단과 리더십이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현재의 교역자들과 함께 교차된 채 보였습니다.

나이들의 신학

구봉주 목사
감사한교회

폴 스티븐스가 쓴 나이들의 신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목대로 은퇴를 앞둔 혹은 은퇴한 시니어 크리스천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물론, 시니어를 준비하는 모든 세대가 읽어야 할 책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평소대로 은퇴를 “좀 더 나이가 들면, 시니어가 되면, 현재의 목회를 은퇴하게 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후에 나는 무엇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는가? 한 번 밖에 없는 삶, 이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어떤 엔딩을 맞이해야 가치 있는 삶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늘 질문해왔기 때문에 이 책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잠깐 저의 시니어 때 할 일을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의 목회를 잘 마무리하면, 한인 교회가 많지 않은 지역들을 3달 씩, 옮겨 다니며, 하나님께서 제게 주

신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나누는 소그룹 사역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일을 놓고 현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십 년 후, 이십 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이 들의 신학은 소명에 관한 책임입니다. 소명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소명을 찾아, 평생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도록 권면하는 책입니다. 의외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 내가 은퇴를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선교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거나,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 좀 쉬어야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60-70이 넘어 전임선교사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외국어를 습득하기에 늦은 감이 있어 선교를 해도 자비량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체나 여타 다른 선교사역을 돕거나 하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멋진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으십니다. 어떤 장로님은 80이 넘으셔도, 여전히 가끔 컨설팅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권사님들께서 중보기도로 뉴호프 미니스트리를 섬기는 일로 끊임없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소명으로 알고,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그 날까지 끝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남은 인생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책을 한 번 사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행복을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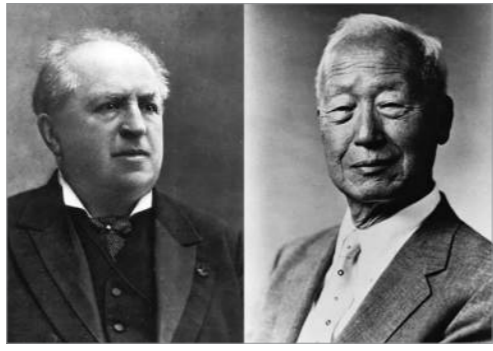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환경부 |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카이퍼와 이승만(9)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대신대 총장



카이퍼와 이승만 ©기독교일보DB

사회 개혁자

카이퍼와 이승만은 그 시대에 걸출한 대인(大人)이었다. 그들은 모두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고, 기도자요, 문필가요, 대설교가이자 연설가였다고 앞에서 여러 번 말한 바가 있다. 교회를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사회를 개혁하는 것은 이른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개혁이란 '정치지도자들이 미처 못 본 것을 살필 뿐만 아니라 약자를 돕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참된 지도자일수록 국민의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을 찾아내 치유하는 역할을 말할 것이다.

우선 카이퍼와 이승만의 사회 개혁의 관심을 말하기 전에, 16세기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의 사회적 관심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요한 칼빈은 27세에 불후의 명작 '기독교 강요(Institute)'를 출판했다. 이 책은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 교리 체계를 완성시킨 불멸의 대작이었다. 이 책 한 권으로 말미암아 칼빈은 그의 조국 불란서에서 체포령이 내려졌고 사형으로 처형 될 몸이었다. 위기를 직감한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로 피난을 가게 된다. 그는 제네바에 머물 마음은 없었으나 그곳에 앞서 와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파렐(Farel)을 만났다. 밤중에 파렐은 제네바 호텔에 머물고 있는 칼빈을 찾아와 "당신같이 기독교 교리체계를 완성한 젊은이가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함과 동시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과의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난민들과 주변국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으니 자연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 칼빈 당신이 제네바 교회를 안정시키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칼빈은 본래 종교개혁의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몸도 병약하고 심약해서 자기에게 꼭 맞는 일은 조용한 곳에 가서 쉬면서 글이나 쓸까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의 권면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조금씩 파렐은 칼빈에게 경고하면서 "만약 당신이 제네바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죽시 천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이때 파렐의 천둥 같은 목소리가 칼빈의 마음을 요동쳤다. 칼빈은 그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제네바에 머물 것을 결심한다. 당시 제네바는 국제도시였던 만큼 활력의 도시였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했고, 민심은 흉흉하고 아무도 그를 추종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칼빈은 2년 만에 기독교 권 세력이 밀려나 스트라스부르크로 추출되는 수모를 겪었다.

제네바는 칼빈이 기독교 권 세력 즉 로마 카톨릭의 잔당들과 자유주의, 이단들이 섞여 있는 그곳에서 일 하기는 너무나 힘들었다. 또한 제네바 의회는 칼빈에게 협력하기보다 오히려 칼빈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칼빈의 모습을 그린 성화 약 80종을 보면 코가 뾰족하고 흰자질이 많으며 마치 마귀할멈 같이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예술에도 중립이 없고, 문학에도 중립이 없다. 칼빈을 모함하기 위해 요즘 같이 '가짜뉴스'가 그때도 많았다. 그러나 칼빈은 신학자요, 설교가요, 교의학자로서 성도들의 일상생활 즉 제네바의 사회생활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밀려오는 피난민들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피난민들

이 사용하도록 했다. 심지어 칼빈은 하수도 문제까지 관여할 정도였다. 또한 칼빈 시대에는 일단 발병하여 걸리면 죽는 악성 괴질, 콜레라는 일반 사람이 접근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때 칼빈은 자기 성도가 콜레라에 걸려 죽어갈 때 가까이 그 성도를 심방해 구원의 확신을 주었다.

칼빈을 멘토로 삼았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각과 정치는 좀 더 역동적이고 진취적이었다. 수상 시절에 카이퍼는 주로 교육개혁과 시위문화를 다스렸다. 당시 사람들은 불란서 혁명의 사상에 몰들어 "하나님도 없애고 주인도 없애자!(No God No Master!)"라는 구호를 외치며 막 나가던 시대였다. 당시 화란은 잘못된 '불란서 혁명'을 모델로 삼아 기성제도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사상으로 가려는 절박한 시대였다. 이때 카이퍼는 의회에서 왼손에는 포켓 신약성경을 들고, 그들의 논리가 부당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뿐만 아니라, 그 천둥 같은 목소리로 의회의 사회주의 자들과 청중들을 장악했다. 그에겐 '논리는 논리로 세계관은 세계관으로 싸워야 한다!' 확신이 있었다. 철도 파업에 이어 마차 파업이 일어났을 때이다. 당시엔 기차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기차역까지 가는데 마차와 마부가 필요했다. 그런데 마부들이 임금인상을 이유로 파업에 들어갔고 반대편 다수당은 마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수상이었던 카이퍼는 여당이 소수당이므로 정책을 시행할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카이퍼는 용감하게 여왕의 허락을 얻고 의회를 해산해버렸다. 그리고 다시 선거를 하여 파업과 수송 대란을 잠재웠다. 역시 카이퍼의 승리였다.

이승만은 카이퍼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믿었다. 정치는 말단 국민과 시골 노년네들까지 대통령의 뜻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승만은 나라를 세우고 여기저기 공산주의자들이 벌인 4.3사태, 여수반란 사건, 대구와 제주 사태 등의 저항이 있었지만, '농지개혁 원수'의 무교육을 실시해 세계에서 문맹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 또한 전란 중에서도 '우리도 원자력을 가져야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장인순, 이창건 같은 원자력 1세대를 유학 보내어 자유대민국의 큰 틀을 만들었다.

카이퍼도 이승만도 틀림없이 둘 다 하늘이 내신 지도자인 것이 틀림없다!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社說

친 동성애로 가는 UMC의 딜레마

동성애 찬반 이슈로 최근 7600여 교회가 탈퇴하는 등 내용이 깊었던 미국 연합감리교회(UMC)가 총회에서 '동성애자 목사안수 금지 규정'을 전격 삭제했다. 비록 개 교회에서 동성애자 목사 파송을 원치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성을 보장했다고는 하나 교단이 친 동성애적 신학노선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교단에 남아있는 보수층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지난달 23일부터 5월 3일까지 개최된 UMC 총회는 지난 1일 회무에서 지난 40년 동안 금지해온 동성애자 목사안수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안을 표결에 붙여 대의원 692명의 압도적 찬성(반대 51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1984년부터 지속돼 온 동성애자 목사 안수 금지 규정이 4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연합감리교뉴스(UM News)는 이에 대해 "UMC의 성소수자 교인에 대한 오랜 제한을 조용히 해제하고 있는 이번 총회의 추세를 이은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곧 UMC가 추구하는 방향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쪽으로 유턴했고 이것이 교단의 자연스러운 기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UMC 총회는 이런 결정을 하면서 "승인된 법안은 또한 목회자와 교회가 동성결혼식을 주례하거나 주례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즉 어떤 결정을 하든 개 교회의 자율에 맡기고 불이익도 없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규정을 만들어놓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상반된 태도가 개 교회에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지 않으나 싶다. 어떤 교회는 동성애자 목회자를 받아들이고 어떤 교회는 거부하는 분위기가 한 교단 안에 혼재될 경우 결국 교단의 법적 권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UMC 총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 자유, 보호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교회와 정부'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다룬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671대 57이라는 92%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UMC가 개인의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결의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즉, 사람들이 남성, 여성, 간성, 트랜스젠더인지와 상관없이 존엄성을 인정받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선언인데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만을 창조하신 신학의 전통을 정면 부인하는 것이어서 보수층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이번 UMC 총회가 동성애와 관련해 지난 세월이 어온 최소한의 금지 규정마저 지울 것이란 건 어느 정도는 예견됐다. 그러나 "동성애 실천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한 사회생활원칙의 52년 된 문구를 파기하고 동성애자 목사안수 금지 규정까지 전격 삭제한 건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 변신이 아닐 수 없다.

UMC는 동성애와 관련해 교단의 제 규정이 살아 있을 때도 이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진보적인 인사들 때문에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교단 지도부가 이들 편에 서있어 교단이 친 동성애 노선에 장악될 것으로 본 약 7600개 교회가 미리 집을 싸 교단을 떠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떠남으로써 결과적으로 UMC가 동성애 친화적인 교단으로 완전히 변모했다는 사실이다. 전체 미국 교회 수의 4분에 1에 이르는 엄청난 수의 교회들이 교단을 떠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한 진보적인 인사들에 의해 감리교단이 지켜온 오랜 규정들과 신학의 정체성까지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 것이다.

이런 파격적인 결정이 교단 내 한인교회에 미칠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교단이 금지했던 동성애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엄청난 변화에도 그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 개교회와 목회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하는 등 보수층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단의 신학적 틀과 노선이 폐기된 데 따른 심리적인 동요까지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단 내 한인총회 등 목회자단체들이 지난 3일 공동목회서신을 발표하고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이번 UMC 총회에서 가장 주목할 결정은 "성소수자 관련한 총회의 결정에 대해 제한 규정을 없앴을 뿐, 지지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다"라는 점을 유독 강조했다.

그러나 UMC 한인총회 총회장인 이창민 목사는 총회 결의 직후에 "전통적 입장을 지향하는 대부분의 한인교회 입장에서 오는 의결된 사항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동성애와 관련해 결정된 사안에 대한 취사선택이 개 교회와 담임 목회자에게 있고, 어떤 불이익도 돌아오지 않게 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인교회 내 일부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힘으로써 향후 UMC 내 한인교회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UMC의 친동성애 기류로 약 7600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한 데다 교단에 남아 있는 교회들도 교단의 이런 결정을 전폭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교회들의 향후 거취가 UMC의 앞날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다수가 전통적인 입장, 즉 동성애를 용인하지 않는 입장에 서 있는 한인교회들로서는 교단 총회의 결정을 수용할지, 아니면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지가 관심사다. 이번 UMC 총회의 동성애 관련 결의는 말이 자율성이지만 개교회에겐 교단 정체성의 모호함에서 오는 혼란으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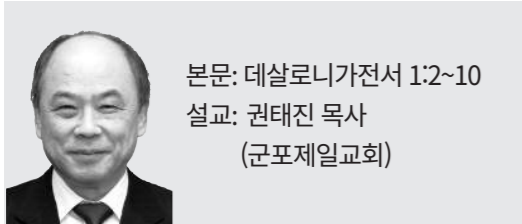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2-10
설교: 권태진 목사
(군포제일교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나 자신은 주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음으로 행복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행복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남으로 행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행9:3-5)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도 여행 후에는 편지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살전1:3)

예수님을 닮은 바울의 심령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믿음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육신 중심의 삶보다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가졌고, 배웠는지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지, 살아 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열매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라”(마7:15)

거짓 선지자는 경계의 대상입니다. 말만 들으면 거짓 선지자에게 속고 외모만 보면 이리를 양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의 말과 외모만 볼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봐야 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진 환경과 주위의 친구, 자녀와 부모를 보고 평가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마7:16-19)

짧지 않은 기간 수많은 사람 만나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 사람의 삶과 열매를 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복된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2.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혼 구원을 위한 수고를 기뻐합니다. 우리 성민원의 복지 현장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무료 급식 봉사 등 복지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랑스러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살전1:4-5)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기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박해하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벽은 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말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월적인 힘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성령이 있으면 견딜 수 없는 곳에서 견디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23:34a)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행7:59-60)

손양원 목사님은 자녀를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 원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견디며 행할 것인가를 생각해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살전1:6)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환난은 부유하거나 안일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는 말처럼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자가 역사를 이룹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마5:6)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교회의 분이 됨으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살전1:7)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시대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너희를 닮은 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좋은 소문은 전도입니다. 사탄은 항상 나쁜 소문을 내지만 성령의 역사는 좋은 소문을 냅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이 미국까지 갔고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찬양이 미국에 퍼지고 있습니다. 성민원의 좋은 소문이 퍼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시기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살전1:1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함께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영원을 사랑하고 행복을 노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교회의 분이 됨으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교회의 분이 됨으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교회의 분이 됨으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생산가능인구(15~64세), 10년 뒤 1000만 명 감소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 인구보고서' 발간
대한민국 존립 위해 인구회복 골든타임 놓쳐선 안될 것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024 인구보고서' 인구소멸 위기, 그 해법을 찾아서를 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저출생 영향으로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20년 후엔 약 1000만 명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는

2023년 3657만 명에서 20년 뒤인 2044년엔 2717만 명으로 감소한다. 전체 인구의 경우 2023년 5171만 명에서 약 40년 후인 2065년에는 4000만 명이 무너져 3969만 명으로 줄어든다.

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 붕괴를 불러오고, 노인 부양 부담

이 커져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하면서 장기저성장이 굳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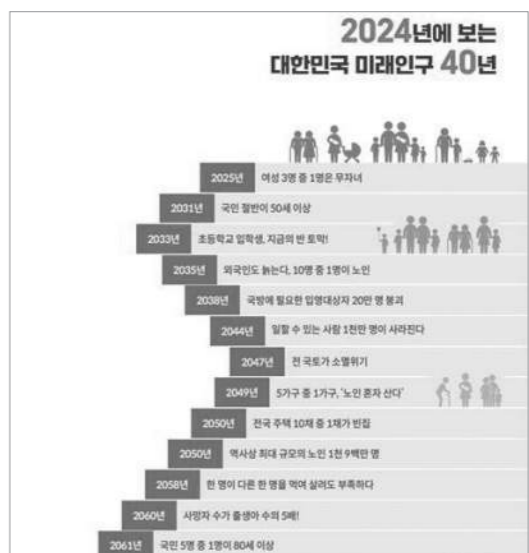
초등학생 입학생 수는 2023년 약 43만 명에서 2033년엔 약 22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병력 자원은 2023년 약 26만 명에서 2038년 약 19만 명으로 감소한다.

반면 중위연령은 2031년이 되면 50.3세로,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되며,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점점 증가해 2050년엔 전체 인구의 40%인 1891만 명이 된다.

전국 228개 지자체 전체가 2047년이 되면 소멸 위험지역으로 진입하고 2049년에는 혼자 생활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가 266만 가구 증가해 전체 가구의 20%를 차지한다. 5가구 중 1가구는 독거노인 가구다.

2050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300만 호 이상의 빈집이 발생하면서 10세 중 1채가 빈집이 된다. 같은 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역사상 최대 규모인 1891만 명을 기록하며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재앙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라며 “인구회복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우리 사회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차희 기자



성명서, 칼럼, 논평 등 언론에 게재된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을 정리한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 지침서'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최신간 NEW

권태진 지음 | 170x240mm(양장) | 400쪽 | 33,000원 | 성빛출판사 | 2023년 10월 15일 발간

저자: 송암(松巖) 권태진

저자는 1978년 10월 15일 천막 하나로 교회를 세운 군포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성도들과 신앙한 가족이 된 그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어비목회라 불렀고 끝없는 사랑의 돌봄을 어비목회라 칭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과 연합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심김으로 밋어지는 목회자이다.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총회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 지역, 교단, 교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되는 운동을 계속해왔고 일남전(영호부대) 참전용사로서 피 끓는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송암'이란 호를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1994년 문예사조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회원, 한국문인협회원으로 시 열여덟 권의 시집, 열두 권의 설교집, 열세 권의 에세이 등 총 4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전송가개발원의 이사장으로서 찬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희망'임을 삶으로 전하며 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 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 MIN.),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명예철학박사(Ph.D.),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사단법인 성민원의 이사장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96회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89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창 3:9절)

매주(화, 수, 목, 금) 저녁 8시에 특별영성 집회가 있어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특별영성 집회는 말씀 듣다가 치료가 역사 나타내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는 집회입니다.

"내 영혼이 잠들 같이 내가 밤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3서 1장 2절)

특별 기도

1. 은혜를 사모하며 은사를 체험하고자 하는 분
2. 임자가 없어서 주일예배가 부담스러운 분
3. 교회 다니다가 쉬고있는 분
4. 교회나 기도를원을 개척하고자 하는 분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와보세요!
(산 속의 기도원같은 집회) ※ 반주자 구함

◆ 집회안내 : 매주(화, 수, 목, 금) 저녁 8시
◆ 장소 : 주영광교회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36번길 7
연락처 : 010-6327-8297

◆ 찾아오시는 길 : 서정리역 출구에서 직진하여 도보 3분거리(서정리 지구대 뒤) 송탄 신장 육교 4거리에서 2번 버스 승차 후 서정리역 하차 도보 3분 소요

영적찬양신유은사대성회

• 총회신학교 졸업
• Midwest 신학대학교 졸업
• Midwest 신학대학원 교회음악 석사과정
•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졸업
•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중앙위원
• 감사성결교회 음악목사 역임

특별 기도

- 손발이 찬 분
-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
- 성령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
-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

최바울 목사
백석총회 동남노회
핸드폰 : 010-3742-9191

너희는 마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4:2)

전도용 사랑의 건빵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한자는 별과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다니엘서2장3절)

믿을 수 있고 맛과 품질이 우수한 금봉제과 제품입니다!

심희승 대표(화창)
010.9289.2442. 02.2273.7247.
신한은행.110.191.288484.

문의: 010 9289 2442

부모님께 효도는 삭개오우슬환으로

삭개오 우슬환은 무릎, 관절, 허리, 연골에 도움
남성-여성에게 큰 도움이 되는 우리집 4번 타자
당귀산수유환은 심장, 신장, 간, 기관지, 폐에 도움
삭개오와 뽕잎환은 중풍, 고혈압, 당뇨에 도움

※ 위 3가지 식품은 당귀산수유환은 약국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모두 건강장생기세요 기도합니다
조삭개오 목사 올림

삭개오와 뽕나무 건강기능식품
상담 및 부흥성회 문의 : 조삭개오 목사
010-9603-0691
간증집회 문의

청주시 상당구 교회매매

☎주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구말길 47-15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리(가지기) 229번지/ 229-1번지(지번)

☎면적
*대지-264(평) / *토지-258(평) / *총면적-522(평)
*사택- 28(평) / *교회-46(평)

☎매매가격: 2억5천만원

<매물장점>
1.청정지역 입니다
2.교회,기도원,수련원,요양원, 전원생활지로 최적입니다.

연락처 ☎010-5622-8240

양봉선교회 양봉무료교육

농어촌 목회자에게 무료 양봉 교육을 통해서 교회자립과 목회자 생활 안정을 위한

대상 : 농촌.어촌.초교파 목회자

접수 : 24년 4월 30일 오후6시까지
010-8813-0191
>> 문자접수 << (지역.교회.목회자 성명)

인원 : 접수순 20교회(1교회 목회자 부부도 가능함)

설명회 : 24년 4월 30일 (화) 오후 1시

장소 : 대전충신평생교육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5 (대덕구청 정문 앞)

수업일 : 5월 4일-7월 6일 (10회에정)
매주 토요일 오전 9:30-오후5:30

특전 : 교육비 전액 장학.
1차 교육 후 양봉관리지도사 3급 자격증 취득 가능.

주관 : 한국양봉선교회

기타 : 전화 상담 사절함. 설명회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줌.

문의 : 042-633-8311. 010-8813-0191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부흥회 특징]

- 불같은 찬양
- 생수같은 말씀
- 강력한 축사
- 우울증해결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 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교회건축의 모든 것
교회건축포럼

교회건축&리모델링 세미나

주제 _ 바라보는 교회건축

2024.04.30(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울 양재 엘타워 골드홀(B1층)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번출구 바로 앞 위치]

2024.05.07(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3F 포럼 2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52 / 2호선, 동백역 1번출구 도보 15분]

참가비 : 30,000원(중식 및 기념품 증정)
• 우리은행 _ 1005-604-628807 [예금주 : 교회건축포럼]
• 문의 및 등록
• 전화등록 : 070-4355-3308
• 문자등록 : 010-3966-1463
[문자등록시 (1.교회명 / 2.등록자명(직분) / 3.참석인원 / 4.핸드폰번호)]
• info@cbuild.co.kr

설계
(주)아진건축사무소 최두길 대표
- 팬데믹 이후의 교회성장을 위한 설계
- 뉴노멀로서의 교회공간 역할의 복합화
-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적 공간전략
- 신재생 녹색 환경의 교회

미디어
(주)크리스시스템 박정민 실장
- 더 나은 유튜브 예배송을 노하우
- 방송장비 운영인력의 솔루션
- 대형 led 구축과 운영의 실제
- 필수 스펙과 용량기술
- 연무대교회 7000여 조명 리뉴얼 사례
- 기독교 뮤지컬투어 방송 사례(수영교회/ 호산교회)

인테리어
에스프리글로벌 최종민 대표
- 강력한 효율을 얻는 리모델링 사례 분석
- 예배를 돕는 공간 연출의 기준
- 다음세대를 위한 공간 활용
- 건축유형과 인테리어의 중요성
- 라운지의 카페, 레스토랑 솔루션
- 3D 시각화를 통한 아이디어 적용 방법

CM
(주)라미건축사무소 이범구 대표
- 교회건축 전문가가 사례를 통하여 전하는 교회건축의 올바른 방향
- 교회건축, 교회가 무엇이다
- 교역자가 알 필요, 건축위원회가 알 필요
- 설계자의 업무, 시공자의 업무
- 감리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하나님을 안으면 불안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당신은 불안을 안고 잘 지내는 사람’

제목이 독특하다. <당신은 불안을 안고 잘 지내는 사람>. 원제는 “Hope in an Anxious World”로, 직역하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소망’ 정도가 될 것이다. 무난한 책 제목을 독특한 제목으로 바꾼 이유는 이 책의 저자인 헬렌 손(한국 발음 ‘손이 아니라 ‘Thorne, 톰’에 가까운 ‘쎈’)이 이 책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 우리가 불안을 안고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저자는 불안을 감쪽같이 사라지게 하는 마술 같은 비법을 약속하지 않는다.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잘 지낼 수 있게 하는 진리를 소개한다. 그녀는 특별히 거짓을 통해 진리를 제시하는데, “나는 철저히 혼자다. 모든 것이 통제 불능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게 내 잘못이다. 내게는 소망이 없다” 등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짓말을 성경의 진리로 맞대응한다.



쓴 책 <Mental Health and Your Church> 등 여러 상담 관련 책을 저술했다. 확실히 저자는 성경적 상담학 분야의 인사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동료인 것 같다. 크리스토퍼 애쉬 등의 유명한 성경적 상담학 교수인 에드 웰치의 책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저자는 우리가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사실에 주목한다(제목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An Anxious World”). 그 다음으로 불안을 주는 거짓과 직면할 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을 다룬다(“불안을 안고 잘 지냅니다”, “Hope in the Face of Anxiety’s Lies”). 저자는 솔직하게 자신이 “평생 불안을 겪어 왔다”라고 고백한다(22p). 압박감에 따른 심한 두통, 출혈 없는 대저리, 그것으로 급하게 도망친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고 털어놓는다. 그리고 저자는 변화를 경험했다고 선포한다. 불안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불안 가운데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에게 소망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들 불안 가운데 고통받는 삶을 산다. 그렇게 만드는 요인은 굉장히 많고 복잡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단순하다.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해 부패한 만물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더러운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빚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아직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다. 우리는 깨어진 몸과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깨어진 삶을 살아간다. 세상에서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제안한다. 호흡법, 운동과 휴식, 철저한 계획과 개선된 삶의 방식, 약물 및 상담 치료.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정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의 전부라면, 소망은 없다. 저자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한다. 아직 온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성취되기 시작한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한다. 거짓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 또한 불안에 떨며 살기를 바란다. 모든 불안 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 문제 가운데 계시며 돌보고 계시는 데도, 철저히 혼자라고 느끼기를 바란다. 통제할 수 없다고 믿기를 바란다. 인생의 목적지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도, 마귀는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존재라고 믿기를 바란다. 능력주시는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 한다고 겁준다. 우리의 실수나 잘못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시는 아버지가 계시어도, 겪는 모든 어려움이 자기 잘못의 결과라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 항상 소망이 있는데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게 한다. 예전 동산에서 거짓으로 사람을 불안한 세상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거짓으로 사람을 극심한 불안으로 몰아간다.

우리에게 약속의 재확인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 모든 불안함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처럼, 그 가운데 아버지에 관한 신뢰와 그분이 주시는 소망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소망을 품어야 한다. 저자가 거짓-진리의 구도로 내용을 전개한 것은 참 유익하다. 불안 중에 누구나 그런 거짓에 휘청거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내부, 세상, 이웃, 마귀로부터 들려오는 불안한 음성을 몰려치고,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헬렌 손의 책 <당신은 불안을 안고 잘 지내는 사람>을 통하여 깨어진 모든 삶들이 하나님을 믿고 잘 지내기를 바란다. 조정의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유행교회

신간

중고생을 위한 성경적 성교육



성경적 성교육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의 기본 질서로 다시 돌아가는 훈련이다. 성경적 성교육은 악하고 패역한 마지막 시대에 순결한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거룩하고 순결한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저자 이진아 대표(남가주 다음세대 지키기)는 수년간 다음세대에게 성경적 성교육을 가르쳐왔으며 다음세대와 다음세

대를 둔 부모를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자는 책 속에서 “성경적 성교육은 왜곡된 성의 개념을 바로 잡고, 자녀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며, 나아가 그들이 미래에 건강한 가정을 꾸리도록 돕는다. 성경적 성교육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하나님이 성을 창조하셨기에 성에 관한 질문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답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임신이나 성병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경계(바운더리)를 넘어서 즐기는 성의

패락은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서로를 파괴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됨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야만 내가 진짜 누구인지, 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깨닫게 된다. 성에 관한 문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다.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생명의 소중함, 순결의 정의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올바른 세계관이 올바른 정체성을 만든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이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교육은 세계관 교육이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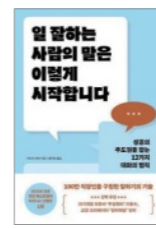
똑 부러지게 일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말할까

화술은 직장인의 단골 고민거리다. 자기개발 서적 매대에 한 분야를 차지할 만큼 오랜 화두였으며, 특정한 정답이 없는 만큼 이 스킬을 개선하고 싶은 이들은 여전히 많다.

일터는 실수에 너그럽지 않다. 누구나 한 번쯤 단어 하나 잘못 말해서 편지를 듣고, 그것도 모르냐며 면박당한 기억이 있다. 직장인이면 마음 한구석에 말을 잘하고 싶고, 동료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숨어 있다. 회의에서도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미팅에서도 똑 부러지게 일 잘하는 이들은 대체 어떻게 술술 말하는 것일까. 책 ‘일 잘하는 사람의 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알에이치코리아)의 저자 아다치 유야는 컨설턴트로 입사하자마자 30년 구력의 경영자들을 상대하면서 의사소통이 서툰 이유가 생각

에 빈틈이 있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22년간 각종 기업 문제를 해결한 저자는 전달력을 높이는 대화의 법칙 12가지와 발견했다. 대화를 통해 타인의 신뢰는 물론이고 지성까지 얻을 수 있는 행동법칙 7가지를 소개한다. 말하기 전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언어화하는 5단계 사고법 과정도 알려준다. 객관화, 정리, 경청, 질문, 언어화로 구성된 5단계 사고법은 단계별 문제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이수지 기자



5월, 작가들의 말말말



새벽에서 시작해 동이 뜨고 해가 높아지는 정오를 지나 빛이 부드러워지는 오후가 되어 노을이 물드는 것을 인생 주기에 빗대어 한참 이야기 나눴다. 선생님은 당시의 시간은 밤이라고 하셨다. 영원한 잠에 들기 전 마지막 시간이라고. 그러면서 좋은 노년은 없다고 하셨다. 좋은 노년은 좋은 중년의 결과일 뿐이라고. 아들이 내리기 전, 하루 중 가장 찬란한 아름다움인 이 시간을 곁에서, 나 자신을 진실하게 대면하며 지내면 좋겠다고도 하셨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앞으로 만날 때마다 밤이 오기 전, 노을이 물드는 시간에 돌아와야 할 진정한 나, 진정한 삶에 대해 얘기 나눠 보자고 하셨다. 가슴이 뻥.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늙음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에 느껴 보지 못한 아주 고요한 설렘이다. 다음 만남이 벌써 기다려진다. 정신실 ‘노을이 물드는 시간’



요한은 먼저,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는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격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얼마나 더 믿어야 하겠는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많은 말씀을 하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다(요일 5:9).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성령의 내적 증거로 인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요일 5:10). 다음으로 요한은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 하신 말씀을 묘사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요일 5:11).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생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만 영생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로버트 A. 피터스 ‘구원의 확신’



복음의 중심성과 탁월함을 더 강조할 방법은 없다. 복음은 기독교의 유일한 메시지는 아니지만 그 위치와 존엄성, 아름다움에 있어 서 단연 으뜸이다. 복음은 성경의 다른 위대한 진리들을 대체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의 초석이자 그 진리들의 참된 지혜를 드러내고 이해하게 하는 프리즘이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떠나서는 기독교도, 신앙적인 헌신도, 참된 영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복음은 인간과 천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시이며, 타락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참된 경건을 취하여 그리스도를 닮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인도하는 위대한 수단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고백의 진실성을 입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폴 워셔 ‘가장 탁월한 복음’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수를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경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제가 읊어낸 책입니다. 박오철 목사 (양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매일묵상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2)

광장히 총격적인 말씀이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이 비유를 봅시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눅 15:1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눅 15:2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죄인인 자들과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셨기 때문이죠. 지금 이 두 부류의 대상이 있고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십니다. 지금 이 비유는 매우 중요하고 심오한 비유입니다. 두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죄인과 의인에게 둘 다 깊은 가르침을 주고 계신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정적인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감히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나죠. 잃어버린 양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공궁에 처할 때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 나를 찾았던 분이 있었다니. 나보다 훌륭한 수많은 의인들이 주는 기쁨이 있을텐데. 보잘 것 없는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관심가지시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던 세리들과 죄인들은 자신들을 찾

시는 수고로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은 사랑이죠. 이 사랑에 마음이 촉촉해졌을 것입니다.

저번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말할 수 없는 희생의 감정, 사랑의 감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 자식이라고, 날 닮은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어찌 답답할 수 있습니까. 어찌 계산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다른 자식을 많으니 하나쯤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었어요. 창조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마리보다 1마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99명의 의인이 주는 기쁨보다 1명의 죄인이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 회개하면

지금 이 세계는 비교우위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좋고 더 나쁘고 이런 세계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심정의 세계를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죄인이 회개해요. 그럼 당연히 기쁜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이 의인 99명이 주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다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회개를 했어요. 그를 의인 99명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세우는 것과 같아요. 저 위에 앉으라고 다 보고요.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요. 잔치의 제일 상석에 앉혀요. 그래 너 이제 의인 됐으니까 저기 100번째 앉



으라고. 이게 아니고 제일 위에 앉혀요. 포도원의 품꾼 비유에서 맨 나중에 와서 가장 조금 일한 자에게 가장 먼저 앞에 세워서 품삯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요, 천국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않습니까. 99명의 의인들이 더 기뻐해, 자기보다 상석에 앉았는데 더 기뻐해요. 자기가 뒤로 밀렸는데 더 기뻐해요. 왜, 하나님과 한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이런 심정의 세계를 깨달아야 천국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세계를 모르면 다 기뻐하는데 혼자 임 배죽 나와서 괴로워하게 돼요. 천국은 이상한 곳이라고 하면서 지옥으로 걸어가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는 자들인데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구원과 자기가 받을 상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었으면 됐지, 잃어버린 양에게 무슨 관심을 가지냐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이 구절에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3개의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다 잃었던 거예요.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기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잃은 것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면, 죄인이 회개하면 이것은 잃은 것을 찾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키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눅 15: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눅 15: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눅 15: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나를 알고, 내 죄를 깨달아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앞에 앉았었던 바리새인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어떤게 기쁨이 되는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예수님 회개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눅 15: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거예요. 회개라는게 죽은 아들이 살아난 기쁨이예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기까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면 이보다 더큰 고통이 없다고 하죠. 부모는 잠을 잘수도 밥을 먹을수도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수십년간 잃어버렸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드라크마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한 드

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반드시 기뻐요. 그리고 잔치를 해요.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드라크마보다 잔치가 더 돈이 많이 들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실리적이고 계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의 실용적인 마음이 이만큼도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 돌아온것보다 더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의인 아흔아홉이 주는 기쁨보다 클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의인 아흔아홉이 주는 큰 기쁨이 있지만, 그 자체로 존귀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지만, 잃어버린 아들이 있으니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이고 그곳에 늘 눈이 가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인 거죠. 진정한 사랑은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을 기뻐해 달라고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이렇게 돼요. 그가 관심 갖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가 웃으면 내가 웃고, 그가 울면 내가 울게 됩니다. 사랑은 이렇게 호흡해요, 이 사랑이 생명이 됩니다.

타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떠난 사건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묵상할 때 광장히 중요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랑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발 사랑해달라고 버림받은 어린처럼 매달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 있어서요, 하나님은 결코, 양보하지 않으시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세요. '아담아 너 나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 안심하고 나와'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아담의 죄를 다 아시고 아담 앞까지 찾아가셨지만, 아담 스스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인과 아벨이 있는데 기인의 귀에 대고 '너의 제사 안 받은 건 사실, 아편처럼 이유가 있어서야 이렇게 다 설명 안 하세요. 다 이해되고 다 납득되고 다 깨달아서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자들은 결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강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박으로 혹은 구걸해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세워서 세워야 돼요. 스스로 세우게 하세요. 세울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질퍽거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이성애 감한 믿음,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논리적으로 타당하면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에, 이런 수준에 결코 타협하지 않고 결코 양보하지 않으시는 세계가 있어요. 제발 회개해줘. 절대 이렇게 말안하십니다. 왜냐. 진짜 사랑 하나가 그러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린 그 사랑을 해야하니까. 감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히 침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하게 하시는 세계. 믿음을 세우시게 하는 세계. 이 세계를 알면 깜짝 놀랍니다. 눈이 번쩍 떠져요. 아 이게 단순한 사랑이 아니구나. 정말 놀라운 사랑이구나. 살아있는 실제적인 사랑이구나.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노력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너가 한 거야. 너가 믿음을 세운 것이고, 너가 돌이킨 거야. 나에게 모든 공을 돌리시고 나보다 더 기뻐하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은 이러한 하나님과 한마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에베소교회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Psalm 37:6 NIV

He will make your righteous reward shine like the dawn, your vindication like the noonday sun.

- vindication: 정당성(正當性)

(시편 37편 6절) 주님께서 너의 의로운 공적을 여명처럼, 너의 정당성을 정오의 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 'make + 목적어(reward & vindication) + 동사원형(shine)'의 구조

- reward: 공적(功績)
- dawn: 여명, 새벽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성분도 UP! 용량도 UP!
"더 커진 프리미엄 환"으로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업그레이드 리뉴얼 출시

광동제약 전속모델

반세기 광동의 독심으로 마침내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고객 감사 업그레이드 출시!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기념 특별 감사 이벤트

{일선확순 500명 한정!}

※ 중점용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구매 시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무료 증정!

쌍향의 진화 정성, 광동 쌍회진 30포 1박스 추가 증정!

침향, 침향추출에센스, 녹용의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으로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은 진귀한 '침향'에 최상위 SAT 등급 뉴질랜드산 '녹용', 침향나무에서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침향추출에센스'까지 담아 광동제약의 반세기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침향환 제품입니다.

100kg 침향나무에서 약 1kg 가량 추출한 진귀한 '침향추출에센스'는 광동제약의 독자 기술력으로 β-유데스몰 등 침향 성분을 담아내어 적은 용량으로도 침향이 지닌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최상위 SAT등급 청정 뉴질랜드산 녹용 전지를 통째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위별 쓰임새가 다른 녹용의 힘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녹용 전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무료 상담 **1899-1260**

뇌치유상담 수면은 생체 시계에 의해 조절된다



아침에 깨어나 햇빛을 쬐면 빛의 정보가 눈 속으로 들어가 시신경을 통해 시교차상핵에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송과체라는 조직에서 잠을 자게 하는 시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 작용으로 우리는 밤이 되면 잠을 자는 것이다. ©rawpixel.com



아데노신은 아침에 활동을 하게 되면 뇌간에 점차 쌓이게 된다. 각성을 담당하는 기저전뇌세포들은 이 아데노신 수용기를 갖고 있어 각성을 억제하는데, 카페인이나 탄산음료를 먹게 되면 아데노신 작용을 방해하여 각성상태로 깨어있게 함으로 잠을 못 이루게 한다. ©pxhere

손매남 박사의 당신의 뇌는 안녕하십니까



손매남 박사

인간은 매일 밤 주기적인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난다. 신체가 평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현상을 가리켜 항상성의 원리라고 부른다. 수면도 이 원리에 따라 우리 몸을 24시간 주기로 잠과 각성상태를 유지하며 반복하는 것이다. 수면을 이루는 첫 번째 원리는 각성 체계를 억제함으로써 잠을 이루는 것이다. 수면과 관련된 유도 물질인 아데노신(adenosine)과 프로스타글린딘(prostaglandinII)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게 되면 뇌간에 점차 아데노신이 쌓이게 된다. 각성을 담당하는 기저

전뇌세포들은 아데노신 수용기를 갖고 있어 각성을 억제하게 된다. 밤이 되어가는 시간이 되면 아데노신의 양이 최대치에 달해 잠이 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카페인이나 탄산음료를 먹게 되면 바로 이 아데노신의 작용을 방해하여 각성상태로 깨어있게 함으로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것이다. 또한 수면은 뇌 척수액에 들어있는 수면촉진 물질인 프로스타글린딘의 영향을 받는다. 수면 물질에는 10여 종이 있으나, 가장 강력한 작용을 하는 이 물질은 뇌 척수액을 매개로 하여 뇌 전체에 전달되어 신경회로에 네트워크 활동을 변화시킨다. 이 물질도 낮 동안에 축적되어 각성을 증가시키는 시상하부 세포들을 억제하고 신경원(뉴런)을 자극하여 수면을 유도한다. 수면을 이루는 두 번째 원리는 멜라토닌 호르몬에 의해 작용한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분비된다. 아침에 깨어나 햇빛을 쬐면 빛의 정보가 눈 속으로 들어가 시신경을 통해 시교차상핵에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송과체라는 조직에서 잠을

자게 하는 시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 작용으로 우리는 밤이 되면 잠을 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면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하루에 5시간 자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9시간 자야 하는 사람도 있다. 자고 나서 그다음 날 일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 사람의 수면 시간은 적절한 셈이다. 잠을 자기 전에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도록 하고 잠이 오면 그때 잠드는 것이다. 매일 같은 시각에 기상하고 취침하는 습관을 들인다. 침대에 들어가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을 때 침대에서 내려와서 기다리다가 다시 잠을 자는 것이다. 잠을 너무 많이 자게 될 때는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게 좋고, 아침에 일어나 햇빛을 쬐면서 가벼운 운동을 하면 밤에 잠을 잘 자게 된다. 잠자기 다섯 시간 전에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운동이나 뜨거운 목욕탕에 가는 것, 술 먹는 일은 삼가야 한다. 충분한 수면을 취했는데도 문제가 있다면 수면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수면은 정신건강의 원인인 만큼 생명 유지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수면을 이루는 총체적 원리는 생체시계에 의해 조절된다. 생체시계는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시교차상핵이라는 곳에 있는데, 우리 몸의 24시간 리듬을 조정하는 핵심 조율자이다. 수면에 작용하는 결정적 요인에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있다. 외적 요인은 수면, 빛, 생체시계, 주변 환경이나 침실 환경이 있고, 내적 요인은 심리적 스트레스, 운동 부족, 병으로 인한 통증, 복용하는 약 또는 카페인 중독 등이 있다. 수면장애의 치료기법으로는 단계적 근육이완 자극조절요법과 인지 치료와 효과가 적다.

◆손매남 박사
한국상담개발원 원장
경기대 뇌심리상담전문연구원 원장
美 코헨대학교 국제총장
국제뇌치유상담학회 회장

오늘의 예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움을 몰아내는 데 과연 얼마만큼의 빛이 필요할까요? 아주 작은 빛입니다. 그것은 등화관계를 할 때 여실히 드러남

니다. 온 동네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느 집에서 TV를 켜고 합시다. 그 빛은 어둠이 밖으로 새어나와 어

두움의 적막을 깨고 만나다. 또한 칠흑 같이 어두운 밤에 조그만 손전등 하나가 아주 훌륭한 길 안내자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주변을 살펴 보십시오. 영적인 암흑이 존재하는 곳은 없습니까? 어두움은 아주 작은 빛으로도 물리칠 수 있습

니다. 예수님은 눈이 달빛에서 반사해서 빛을 발하듯이,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내는 그 빛을 당신에게서 요구합니다. 당신은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으로써 그 빛의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영혼의 오아시스

끓은 상처의 치유 The Healing of Festered Wounds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무너진 건물들

온 땅이 갈라진 상처의 피고름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The whole earth Is screaming With the pus of its split wounds.

이슬람교와 기독교, 흑인과 백인, 좌파 정치 세력과 우파 정치 세력의 불신과 증오의 총탄이 세계의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

The bullets of distrust and hatred Between Islam and Christianity, Black and White, Left-wing and right-wing political forces, Are exploding everywhere around the world.

갈등과 충돌의 소용돌이 속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침묵하는 신을 저주하거나 원망할 때

When amid the whirlpool of conflicts and clashes, People all over the world Curse or resent the silent God Writhing in sorrow and pain,

못 사람의 침과 돌팔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에게 소망과 구원의 빛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는 속삭인다

Though spat on and pelted with stones by the crowd, Jesus, who bled on the cross To give them the light of hope and salvation, Whispers:

"너희는 사랑과 용서의 DNA가 잠자고 있으니 서로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날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Since the DNA of love and forgiveness within you Lies dormant, Eat my flesh and drink my blood every day To heal each other's wounds."

◆김완수 시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영문학 박사, 시인 겸 수필가, 사단법인 기독교문학가협회 세계화추진위원장, 세계평화문학상, 황금찬 시문학상, 세계시의 기동상, 타고르 기념 문학상 등 다수. 시집 <문명의 처방전>, <감사꽃>, <미친 사랑의 포로> 등 다수. 해외 발간 저서 14권.

4,240번의 연구로 태어난 스킨 허그 미스트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SCIE급 논문 등재
큰열매 모자반
성분 함유

11가지 천연성분
레시피 함유

skin hug mist

QR코드 찍고
구매하러 가기

검색창에 "라파로페"를 검색해보세요.

고객상담센터 043-900-0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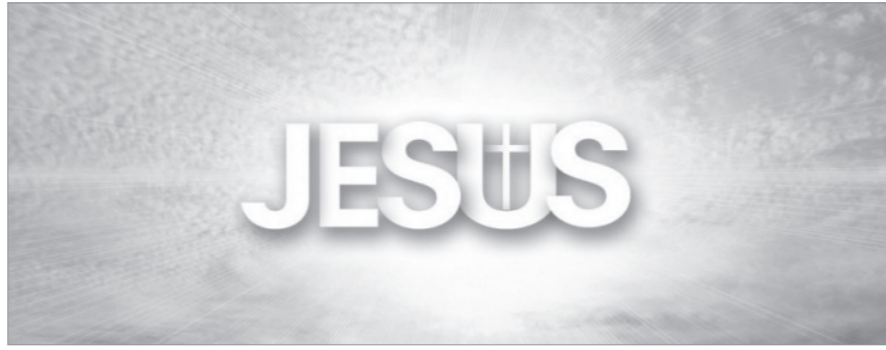
쇼핑몰주소 www.rafarophe.com

신앙과 가정 사용기한

오래전에 들은 예화가 기억이 납니다. 못은 써야 된다고 합니다. 쓰지 않고 방치 해두면, 공기 중의 수분과 염분으로 인하여 산화가 되어 부식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쓸래야 쓸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 땅에 던져진 못이 별 별게 녹슬어 있어서 푸슬푸슬 부식하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안 써서 가만히 모셔두었다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열심히 망치질을 당하고 쓰임을 받아 "달아서 없어지겠다"라고 결의를 다지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도의 차이가 있고, 관리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모든 사물에는 '사용기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에도 사용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에도 물

건에도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용기한, 그것이 인간의 수명이겠지요. 오직 사람만큼은 우리가 제조자가 아니니 사용기한을 명시하지 못한 것일 뿐, 우리의 수명이 제한되어있어서 사용기한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 혼자 저녁을 해결해야 해서 무엇을 먹을까 하다가 찬장을 뒤져서 라면을 찾아냈습니다. 여러 종류의 라면이 있어서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오래전에 사두었던 꼬꼬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개봉을 하고 포장지를 보니 사용기한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 지난 것이었습니다. 먹어, 말아? 버려야 하나? 잠시 고민을 하다가 뭐, 6개월인데... 그



리고서 먹었습니다. 째뻍한 마음으로 먹어서인지 맛은 별로였습니다. 그나마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용기한 내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아깝다고 두었다가 이러는 게 싫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집에는 사용기한을 넘긴 것이 수두룩합니다. 버리지 못하는 습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서 둔 것인데, 특히 약이 더 합니다. 작년에 사용기한 지난 것들은 과감하게 버린 것이 한 보따리인데도 아직도 가끔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부들은 어떨까요? 냉장고에 음식을 사다가 놓습니다. 먹어야지 하다가, 사정상 다 먹지 못하고 냉장고 안에서 부패되어 버린 음식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모두가 경험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용기한이 되기 전에 다 먹든지, 먹지 못하면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 아깝게 버리는 일은 없지 않을까? 아깝다고 야고고, 야고고 또 야까다가 결국 사용기한을 넘겨서 버려야 하는 아이러니...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리고 보면, 우리 인생도 분명히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제조자이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기간이지요. 그렇다 하더

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용기한을 가지고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버려진 채로 살 것인가, 아니면 쓰면서 살 것인가?"의 결정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물질, 시간, 재능,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려 하십니까? 사용기한 내에 잘 사용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버려두고 있다가 어느 날 용도폐기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 얼마나 아깝고 통탄할 일일까요? 사용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저에게도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썩이지 맙시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에, 영원한 가치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 그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교회 제공

교회오빠

바울이 보는 하나님 (4)

(2)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신 하나님
어떤 이들은 거룩한 삶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는 한 진정한 거룩함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음이니(살전 4:7)

(3) 화평함에 이르도록 부르신 하나님
어떤 이는 믿음 가운데 산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미움을 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미움이 커져서 나중에는 증오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경우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화평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평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의 화평에 이르도록 하

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모두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스도 인이라면 누구든지 한 형제요 자매로 지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가족이 된 자들이 자신의 주장만이 옳은 것이라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분쟁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서로 화해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려 하거든 떠나게 들지 마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경우에 얽매일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고전 7:15)

(4) 은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
은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기대나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부르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조차도 이 은혜 안에서 누리기보다는 여전히 다른 복음을 좇아 스스로 고통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과연 주님의 은혜의

자리가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갈 1:6)

(5)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
주님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신입니다. 과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신과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 답은 당연히 "아니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 신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차 없이 징계를 가합니다. 거짓 신들이 요구하는 헌신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의 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한 필요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고전 1:9)

(6) 그분의 왕국과 영광에 들어가도록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순간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면서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머무는 장소는 장차 사라져버릴 세상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장차 머물 처소를 준비하시고 이 땅의 심판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난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연합함도 수척스럽지 않게 해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욕에 대해서도 오히려 감사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보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의 소망은 결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장차 있게 될 영광스러움에 더욱 큰 비중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살전 2:12)
창골산 불목사 제공

향유욕합

가장 값지고 건강한 조건의 환경



가장 값지고 건강한 조건의 환경은 자연 그 자체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그 어떤 인공의 환경도 없습니다. 아니 좋은 인공적으로 추구하는 환경이 곧 자연 자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며 그 자연적인 조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간단히 자연으로 가면 될 것을!

선선한 이 여름 등산화를 신거나 더 좋게는 맨발로 산길을 올라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비싸고 고귀한 산소와 산기운과 바람과 하늘 숲의 아름다움을 거저 누리고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농장에서는 퇴비를 나르며 이 특권을 누리하고자 모입니다. 그저 산에서 일하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산마루서신 제공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일하되 일은 되게 하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 6:6)



김진연

사람이 일을 할 때 보통 두 부류가 있다고 한다. 사람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 일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것이다. 우리 팀은 그럼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팀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리더일까?

팀을 이끌다 보면 일의 진행 과정 가운데 팀원들과 의견 마찰이 생기거나 본의 아니게 환경으로 인해 일이 틀어지거나 해서 난처해지는 상황이 생긴다. 좋은 뜻인 것은 알지만 의견 수렴이 안 된다거나, 일은 마쳐야 하는데 팀원의 작은 실수로 인해 일이 지연된다거나, 애는 썼는데 결과가 안 좋아 낙담되는 경우 등 일과 팀원 사이에 끼어서 리더는 참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본인 잘못도 아니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의 변명도 대신해야 하고 정말 커다란 실수를 했다면 팀을 대표해 모든 곤욕을 치러야 한다.

이럴 때는 어떤 주관을 갖고 어떻게 일을 대해야 할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애라고 생각한다. 인애는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한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인애의 하나님이시다(호 2:14-23).

인애는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한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친절과 자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인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사이에서 행해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며 의무이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처럼 과연 하나님은 제사 받으시는 것을 원치 않으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단순한 제사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공효와 자비를 베풀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다. 제사를 바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는 자는 반드시 사람에 대한 인애도 행해야 한다는 강한 표현이다.

일이 잘되도록 잘해야 한다. 최상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유의 주, 왕의 왕께 드리는 것이기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그런데 일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에도 리더는 일을 맡긴 팀원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일은 진행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어떤 팀원들은 이러한 리더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기까지 한다. 그럴 때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일이 더뎠더라도, 기대했던 것보다 결과가 아쉽더라도 그렇게 애써 보자.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다. 일이 잘되게 하려면 그 전보다 더욱더 고민하며 좋은 대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어 일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렵지만 그 좁은 길을 갈 때 주님은 승리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우리가 인애의 마음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쁘게 계실 분이 아니다.

어렵지만 그 좁은 길을 갈 때 주님은 승리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도 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 분이시다. 세상에서처럼 일의 결과만을 따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생각보다 어려워지더라도 사람의 마음과 과정을 중요시하는 세상과는 다른 팀을 만들어야 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바탕에 깔린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또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

얼마 전, 선교단에서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 오랜 기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 힘든 작업이었다. 그 일에 모든 단원이 애를 썼지만, 누구보다 제일 앞장서고 헌신했던 단원 한 명이 어느 정도의 중요한 일이 끝나자마자 다리를 다치게 되었다.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웬걸 다시 영상을 찍어야 할 일이 생긴 것이다. 나는 이제까지 애쓴 단원이 실망할 모습이 떠올랐다. 그래서 좋게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그 단원을 꼭 넣었으면 하는 마음을 감독님께 전하며 이전 영상을 그대로 쓰자고 했다.

“다른 단원으로 대체하면 될 것을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감독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일 자체를 생각했을 때는 그 결정이 결코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일보다 내게는 단원들이 더 중요했다. 주님께 어떻게 해야 주님 뜻에 맞게 갈 수 있는 것인지 물으며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했다. 며칠이 지나야 나는 단원에게 일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물었다. 내 마음 또한 진심으로 이야기했다. 그 단원은, 무척 아쉽지만 팀과 일을 위해서는 자신은 아무래도 괜찮다며 다른 단원으로 대체해 다시 찍을 것을 권유했다. 주님이 아시면 됐다는 그 단원의 성숙한 믿음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감동했다. 일은 이전보다 더 잘되었고, 우리 모두 기뻐할 수 있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요 14:12)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잘 할 수 있다. 단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애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주님처럼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렘 9:24)

◆ 김진연

예향위십맨스 선교단을 창단하여 지금까지 영감 있고, 수준 있는 워십맨스 작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선포해 오고 있으며 예배 안에서의 춤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몸의 언어로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예배의 도구로 사역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예향위십을 통해 예배 안에서의 온전한 영적 회복과 효과적 복음전도를 목표로 온 세계 열방을 향해 크게 달려 나가기 위해 준비 중이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이새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 6:26-27)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인간들을 만나주시는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2000년이 넘는 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가끔 예수님이 우리가 본 하늘을 보고, 우리가 먹은 음식도 드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닦으셨다는 성경 말씀을 가슴으로 그려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된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며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주를 직접 보며 살았을 몇몇의 유대인들이 부럽기도 하다. 나중에는 온전히 주를 알겠지만 현재 우리는

주의 얼굴을 모르지 않는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김새까지도 보았을 테니 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친히 사람을 만드신 주께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잃어버린 소망, 또는 잊혀진 소망을 깨우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가르치셨다. 본문도 그러하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보니 배가 고팠고, 주께서 한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여를 많은 수로 불리셔서 남자의 수만 세어도 오천 명이 되는 이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다. 그 현장을 목격한 이들이었지만 그들은 먹는 것에만 만족했고 주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주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표적을 보고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 줄 공급자를 찾아왔을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본격적으로 주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가르치신다. 하지만 무리들은 하늘의 양식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되묻는다. 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일이라고 대답하

신다. 그러면 당신의 표적이 무엇이나고 묻는 아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주는 떡이 아닌 하나님께서 참 떡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출애굽을 시킨 모세, 그들이 먹은 만나가 신령한 역사의 주인이자 음식이었기에 이것 이상을 상상하거란 쉽지 않았다(고전 10:1-4). 그래서 그 떡을 사모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산 떡이 곧 자신임을 말씀하시며 하늘의 양식을 먹는 이는 영원히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하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몸을 위해 매일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의 산 떡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거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나는 최근에 그동안 아껴왔던 건반을 중고시장에 내놓고 음악 작업을 위해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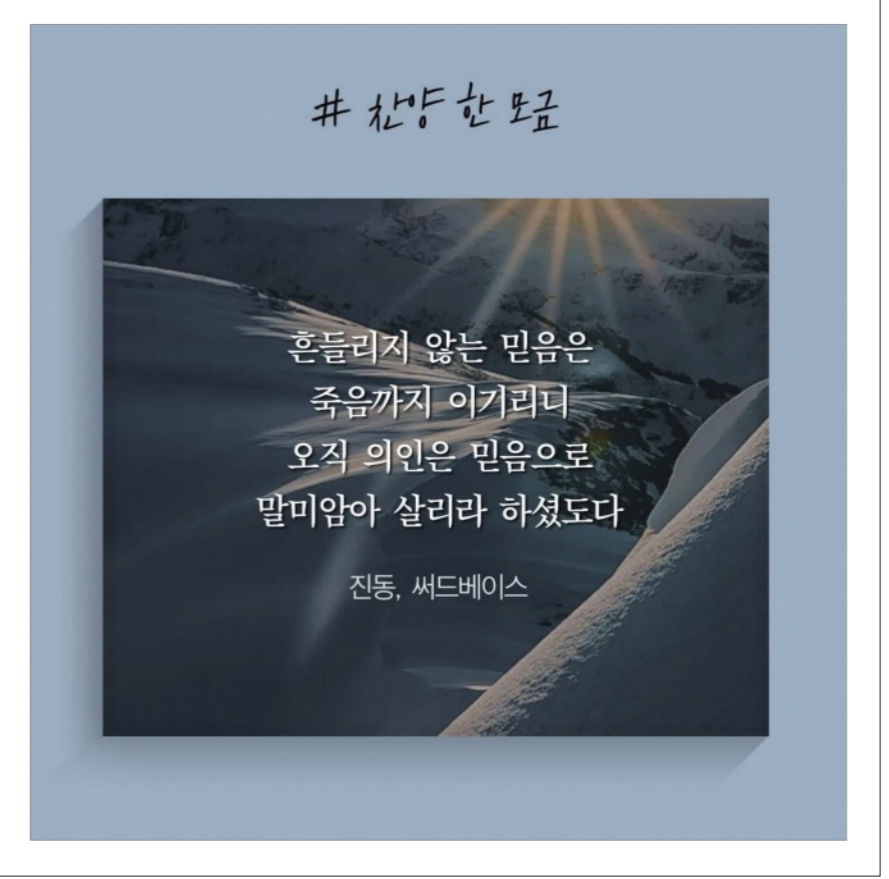
보다 훨씬 가격이 비싼 건반을 구매해야 했다. 물론 재정적인 손실이 없기를 주님께 구했다. 이 과정들이 잘 해결되어서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주께 간구했다. 돌아보니 주께서는 나에게 가장 적절한 가격으로 건반을 사고 재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주님은 나의 좋은 공급자가 되어주셨다. 하지만 이 말씀을 따라 주께서는 나에게 공급자 이상이 되신다. 주께서 주시는 산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가 생명의 떡이 되신다.

우리는 지금 나의 기도와 간구하는 것들이 예수님 그분인지, 아니면 일용할 양식과 내일의 일거리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때이다. 많은 사역들로

우리의 마음은 분주하지만, 하나님의 일 구주로 굳건히 바라보는 믿음임을 되새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나의 겨야 한다.

◆ 이새나

호서대학교 기독교연예학과(음악예술학사), 서울장신예배찬양사역대학원(예배찬양사역학 석사/M.W.M)을 졸업하여 논문 「크리스천 음악 아티스트의 정체성 연구(국내 보컬리스트를 중심으로)」를 발표했으며 2014년 개인 앨범 「자화상」, 2015년 「In A Refreshing Breeze」를 발표했다. 현재 크리스천 음악작사, 작/편곡, 보컬디렉터 및 찬양사역자로 활동 중이며 저서로 『찬양에 수를 놓다 1』, 『찬양에 수를 놓다 2』(뚝뚝출판사)가 있다.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예수 드라마 <선택받은 자>, 디즈니플러스도 진출

미국의 유명 드라마 시리즈 <선택받은 자(The Chosen)>가 디즈니플러스(Disney+)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된다.

이 드라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삶을 다룬 작품으로, 올해 1월에 시즌 4가 출시되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블로그 '인사이드더매직(Inside the Magic)'을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드라마 시리즈는 4월 29일부터 디즈니플러스와 훌루(Hulu)를 통해 3개 시즌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드라마의 제작자 맬리스 젠킨스는 최근 소셜 미디어에 이 소식을 알렸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확히 파트너십은 아니지만, 시즌 1부터 3까지 또 다른 새로운 시청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디즈니플러스가 "스트리밍 왕국의 권위를 높였다"고 인사이드더매직은 평가했다.

그러나 이 매체는 디즈니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논란이 되는 친 동성애 콘텐츠를 위해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을 감안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룬 콘텐츠는 일부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지막 추



예수 영화 <선택받은 자>의 한 장면. ©라이언스게이트

가일 수 있다"고 했다.

'선택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룬 최초의 시즌제 드라마로, 여러 해 동안 큰 인기를 끌었다. 시즌 4는 올해 2월 미국 전역의 극장에서 개봉되어, 개봉 첫 주말에 박스 오피스 2위를 차지했다.

처음 이 작품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인 기금으로 제작되었다. 초기 작품은 엔젤스튜디오(Angel Studios)를 통해 배급되었으며, 현재는 할리우드 최대 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중 하나인 라이온스게이트(Lionsgate)가 배급하고 있다.

디즈니는 2023년 11월에 컴캐스트(Comcast)로부터 훌루를 86억 달러에 인

수하여, 여러 R등급(17세 미만 부모 동반 시 시청 가능) 영화와 성인물 TV 시리즈를 얻을 통해 볼 수 있게 했다.

인사이드더매직은 디즈니가 '선택받은 자'를 스트리밍 하는 이유가 "순수한 현금 확보 때문"이라며, "미국 호러 스토리(American Horror Story), 릭 앤 모티(Rick and Morty)와 같은 성인 중심적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구독자들이 되찾으려는 잠재적인 시도"라고 밝혔다.

'선택받은 자'는 유튜브 TV, 아마존프라임, 피콕, 넷플릭스 및 애플TV를 포함한 여러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유진 김 기자

CGN, 새 육아 힐링 솔루션 콘텐츠 <크리스천 슈퍼맘> 방영

5월 3일 첫 공개

CGN이 선보이는 새로운 육아 힐링 솔루션 콘텐츠 <크리스천 슈퍼맘>이 5월 3일 '풍당'에서 공개됐다. 다양한 사례의 리얼 육아 VCR을 보고 함께 고민을 나눠 보는 순모임 컨셉의 콘텐츠다.

<크리스천 슈퍼맘>에는 순장으로 개그우먼 이שמ이 집사, 부순장으로 사모이자 개그우먼 김효진 집사, 개그맨 이정규의 아내 박지현 집사가 셀리더로 출연하며 따라 하는 기도로 유명한 장재기 목사도 함께한다. 총 7회분으로 5월 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OTT '풍당'에 업로드되며, 6일부터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20분에 CGN TV에서 방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선교사, 개척교회 사모, 일반 직장인, 연예인 등 사회에서도 열심히 섬기며 '엄마'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며 이들의 정신 없는 육아 일상이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고 크리스천 엄마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육아의 선배들과 목회자가 위로와 성경적인 조언을 건넨다.

<크리스천 슈퍼맘> 3일 날 공개된 1화에는 대만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사례자가 출연했다. 낯선 타지에서 적응하기



<크리스천 슈퍼맘> 출연진 사진. ©CGN

도 힘든 상황에 매일 사건사고가 이어지는 헬기왕성한 두 아들과 선교사로서 바쁜 일정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우는 남편까지.. 엄마로서 성경적인 육아뿐만 아니라 존재에 대한 고민마저 들게 하는 사례자에게 육아 솔루션을 건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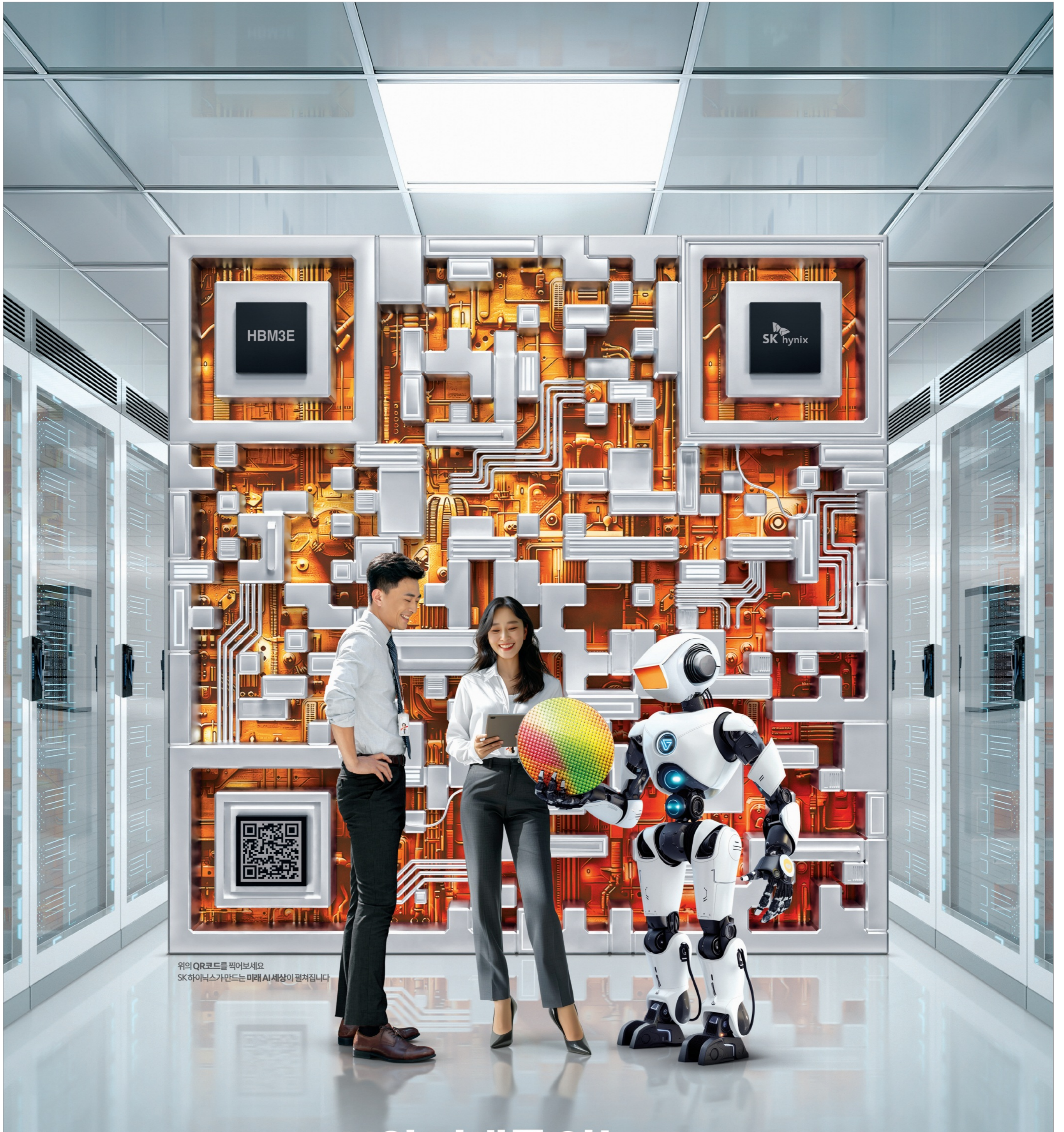
이שמ이 집사는 "육아의 일상은 '감사함'을 떠올리기 힘들고 바쁨의 연속이다. 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라는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하고 소중한 선물로

써 아이들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크리스천 슈퍼맘>이 그 역할을 도울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래는 풍당 시청 방법

- △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기 :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풍당' 검색 후 다운로드
 - △ 스마트TV로 시청하기 : LG, 삼성 스토어에서 '풍당' 검색 후 설치
 - △ PC로 시청하기 : www.fondant.kr
- 장요한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 새벽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신앙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조건희 목사의 찬양과 나눔	00 생명의 삶 20 바이بل 프로젝트 (신약)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울림 30 TV강단 하늘빛광성(박경수)	30 복음강단 -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 30 생명의 말씀-이갑평 목사(예수사랑교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선교의 땅 우간다를 가다	10 [말씀]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50 [말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	00 생명의 양식 신나는(이정기) 30 주만찬 50오늘 만나는 큐티	00 생방송 명설교회 새벽기도회 40 만나 위시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백용현 목사(대전한빛교회) 50 생명의 말씀-이기용 목사(영광제일교회)	20 말씀의 생터 대지순복음교회 한별 목사 50 말씀의 생터 온누리비전교회 김동국 목사	30 지선생의 감정테라피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목상 (사도행전 2024)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30 말씀의 능력(전태식)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50 노변담화
	8:00	20 신앙예배 30 자판기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50 선교의 땅 우간다를 가다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20 CBS 성서학당 (김기석)	00 비전메시지 - 청운교회 이말산 목사 3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백세특강	20 선교의 땅 우간다를 가다 50 힐링송	0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프하우스무브먼트)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10 새롭게하소서	00 고통겨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치욕 30 성지가 좋다
	10:00	20 CTS두란노 성경교실-박정호 목사 50 7000마리클 - 예수사랑여기에	00 비전설교 라이프처치 심성수 목사 30 말씀의 생터 든든한교회 장항희 목사	20 어메이징 그레이스	00 성서 700 도시여행 40 CBS뉴스	00 내 삶의 행복 5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11:00	40 Miracle Moment 50 [생방송] CTS 뉴스	00 명사들의 명강 30 비전설교 새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0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목상 (사도행전 2024) 50 지선생의 감정테라피	00 모두의 거실 50 살롱 살롱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50 복음강단 - 수원명성교회 유민석 목사
	12:00	30 생명의 말씀-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00 선교의 땅 우간다를 가다 30 말씀의 생터 풍성한교회 김성근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말씀] 이인호 목사(대사랑의교회)	00 TV강단 인찬제일(이제일) 30 TV강단 용인비전(신우인)	20 말씀의 창 - 온정감리교회 최상일 목사 50 비전메시지 - 큰은혜교회 이규호 목사
	13:00	0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10 주성민 목사의 주의 길 30 신앙예배 40 인생을 바꾸는 7분 - 예수가 길이다 50 Miracle Moment	00 비전설교 중앙성경교회 한기재 목사 30 오회숙 목사의 국제 바이를 사관학교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말씀] 박신용 목사(말바리온누리교회)	00 율포원	30 비전메시지 - 청주순복음교회 이도규 목사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GOODTV스페셜 로드기행 이경의 건다보면 3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0 말씀의 힘 수원목양(유태민) 30 CBS 아카데미 숲	00 김삼환 목사의 칠 년을 하루같이 40 나의 심자가 : 세계의 심자가가 나의 결으로
오후	15:00	40 7000마리클 - 예수사랑여기에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꿈	00 [말씀]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40 생명의 삶	20 영혼의 양식 구세군대한병영 30 TV강단 용인송진(권준호)	00 힐링토크 회복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6:00	30 생명의 말씀-안성복 목사(세린교회)	00 말씀의 생터 찬양한교회 임다윗 목사 40 황덕영 목사의 비전메시지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예수가 전한 말복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말씀] 이인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	00 CBS 성서학당(신우인) 50 CBS 비전특강 윤차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17:00	00 수영로의 시간-이규현 목사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	10 말씀의 생터 평택성원교회 박종권 목사 40 말씀의 생터 세계로방주교회 방재길 목사	30 [말씀]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40 크리스천칼럼 일산광림(박동찬) 5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00 월드비전과 C채널이 함께하는 희망터치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8:00	00 생명의 말씀-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30 Miracle Moment 40 아주 특별한 찬양	10 매일 주와 함께	10 바울로부터 5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10 파워인터뷰 30 TV강단 여의도침례(국명호)	00 말씀의 창 - 홀리씨드교회 서대원 목사 30 말씀의 창 - 든든한교회 장항희 목사
	19:00	30 사장님은 선교사	00 장상길 목사의 생명의 장밋비	30 구약의 세계로 <오십소>2	00 이영훈목사의 말씀까지 복음을 30 TV강단 용인비전(신용수)	00 비전메시지 - 개령교회 김도경 목사 30 말씀의 창 - 영광교회 윤보환 목사
저녁	20:00	20 글로벌 신앙예배 30 생명의 말씀-김의철 목사(송도가나안교회)	00 명사들의 명강 30 말씀의 생터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정은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크리스천 슈퍼맘	00 2시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나엘 기도회 40 잘 믿고 잘 사는 법	00 오정현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0 복음강단 - 오송하늘문교회 이재준 목사 40 말씀의 창 - 서울제일교회 최봉수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내가 매일 기쁘게	05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30 박중순 목사의 묻고 답하고 40 힐링스토리 50 GOODTV 뉴스	00 상당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김기석) 50 CBS 뉴스	10 나의 심자가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
	22:00	30 CTS두란노 성경교실-박정호 목사 30 백설기	1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40 나의 삶 너의 노래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목상 (사도행전 2024) 20 CGN 월드뉴스 40 CGN라이브위시 (다와서 찬양해) - 온누리교회-	10 새롭게하소서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20 소문난 성경교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3:00		10 2023 다나엘기도회	00 카일 아이들만의 단순한 믿음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00 주만찬 20 오늘 만나는 큐티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00 말씀의 생터 물뫼들교회 안호성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반태호 목사(방주교회)	00 성서 700 도시여행 40 목사님 궁금해요	00 한소망교회 한별의 기도회 40 나의 심자가 : 세계의 심자가가 나의 결으로
	1:00	00 감명성 목사의 하나님의 음성 30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	00 말씀의 생터 순복음중동교회 김경문 목사 30 주일리틀왕국기도회	0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4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생명교회)	00 소망의 말씀 (김경진) 40 CBS 비전특강 윤차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00 비전메시지 - 기쁨이있는교회 조지훈 목사 30 비전메시지 - 더글로리처치 박선민 목사
	2:00	20 힐링스토리 30 CTS한반의 찬양	00 명설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30 말씀의 생터 사할리교회 라운즈 목사	20 [말씀]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30 TV강단 승리(백규성)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3:00	00 다시보는[CTSWEK] 50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00 GOODTV 특별간중	00 [Global Sermon] Kyle Idleman's Wreck The Roof 30 [말씀] 양춘길 목사(멜그림선교회)	00 모두의 거실 50 살롱 살롱	00 만나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서임중 목사 20 오늘의 양식 30 스프링하우스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꿈의교회 김학재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 50 CBS 교회소식	0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 -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40 나의 심자가 : 세계의 심자가가 나의 결으로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